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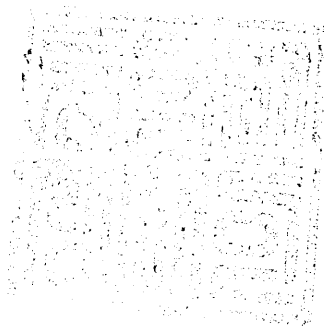
3037  
309e

91-0-320

第41回 世界卓球選手權大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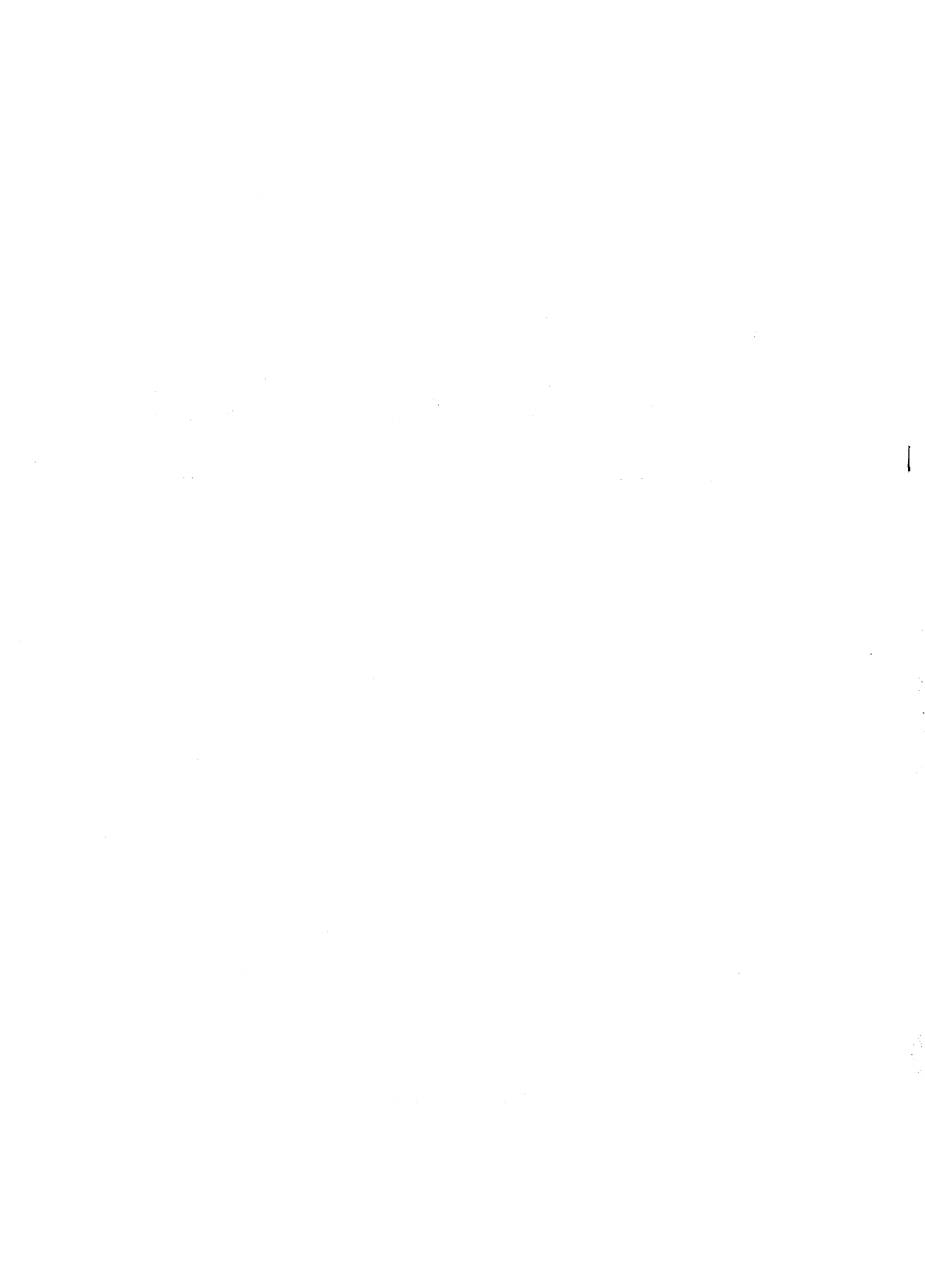
卓球單一팀實務委員會 第2次會議 會議錄

1991. 3.



1006

統 一 院  
(南北對話事務局)



<目 次>

1. 一 般 事 項 ..... 1

2. 會 議 錄 ..... 3



# 1. 一 般 事 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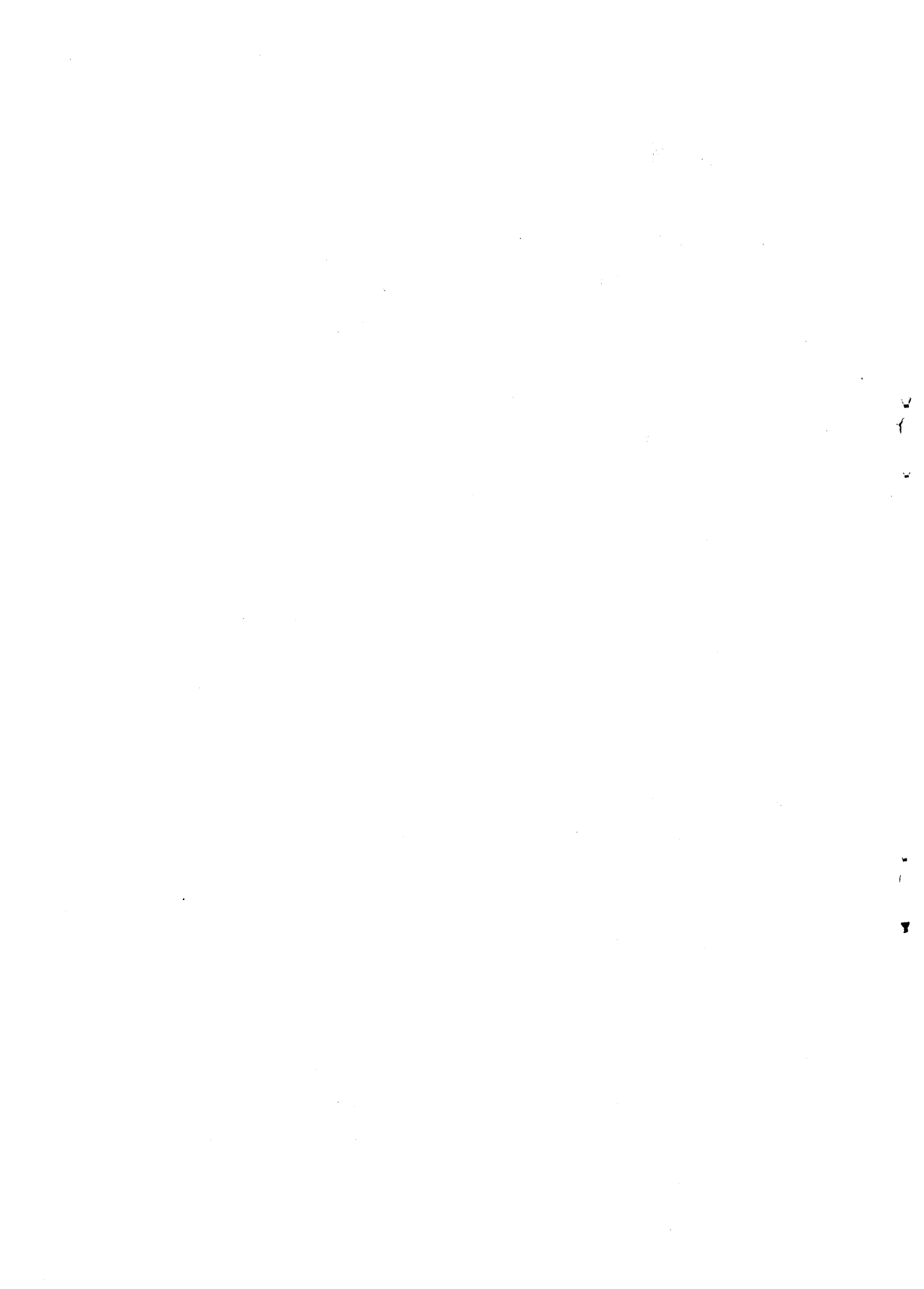
가. 日 時 : 1991. 2. 27 (水)

- 10 : 00 ~ 12 : 12 (午前會議)
- 14 : 15 ~ 15 : 05 (文案調整을 위한 實務代表接觸)
- 17 : 07 ~ 17 : 39 (午後會議)

나. 場 所 : 板門店 우리側地域 『平和의 집』

다. 雙方 代表團

우 리 側	北 側
<p>&lt;共同委員長&gt;            朴 聖 仁            (大韓卓球協會 副會長)</p>	<p>&lt;共同委員長&gt;            장 웅            (조선올림픽위원회 서기장)</p>
<p>&lt;委 員&gt;            金 昌 濟            (大韓卓球協會 專務理事)</p>	<p>&lt;委 員&gt;            김 상 부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p>
<p>朴 秀 蒼            (大韓올림픽위원회 委員 兼            大韓卓球協會 理事)</p>	<p>김 희 진            (조선탁구협회 서기장)</p>
<p>朴 道 天            (大韓卓球協會 理事)</p>	<p>강 영 삼            (조선탁구협회 위원)</p>
<p>方 光 一            (大韓卓球協會 理事)</p>	<p>박 시 남            (조선탁구협회 위원)</p>



---

---

會 議 錄

---

---





## 2. 會 議 錄

午 前 會 議 (10:00~12:12)

<雙方代表 入場 및 人事交換>

南(朴聖仁) : 안녕하세요?

北(장 응) : 자, 또 악수합니다.

(記者들 寫眞撮影)

南(朴秀蒼) : 이번에는 좀 省略합니다.

南(朴聖仁) : 어떻게 잘 주무셨습니까?

北(장 응) : 좀 이것 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南(朴聖仁) : 예, 어떻게 김선생님도 밤에 잘 주무셨어요?

北(김희진) : 그럼요. 편안히 잘 잤습니다.

南(朴聖仁) : 아니 나는 1次때는 처음이 돼서 긴장하느라고 잠이 잘 안 온 것 같고, 2次때는 잘 合意될 것이다 하는 이런 期待感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잠이 잘 안 오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잠을 설치게 돼데요.

北(장 응) : 어제 蹴球가 아주 전격적으로 잘 됐는데, 그런데 축구가 우리 보다 뒤늦게 시작했는데.

南(朴聖仁) : 글썸 말이에요.

南(朴秀蒼) : 우리가 先手를 뺏겼어.

北(장 응) : 그런데 속으로는 그러나 무슨 긍지를, 그것 때문에 졸음이 잘 안 오더라고.

南(朴聖仁) : 아니, 그런데 어제께 축구를 보니까 상당히 양쪽에서 讓步의 精神이라고 그러네요. 아주 정말 저희가 생각치 못할 정도로 빨리 돼서 아무튼 先制는 뺏겼지만 先制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맺음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끝맺음을 蹴球보다 더 잘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北(장 응) : 어제 만났습니다 축구양반. 그 동무들 만나가지고 자기네가 우리보다는 앞섰다는 것, 역시 축구가 축구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승意는 앞섰지만 나가는 거는 한 서너달 뒤떨어진다. 역시 탁구가 앞선다 그랬는데, 또 오늘 약간 봄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南(朴聖仁) : 그렇네요.

北(장 응) : 봄비가 내리는 것을 보니까 아마 오늘 委員會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얼마전만 해도 썩하니 추웠는데.

南(朴聖仁) : 그렇지요.

北(장 응) : 날씨가 또 푸근해지고,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春夏秋冬 季節이 明白하고, 오늘도 보니까 먼저번에는 밖에 나가면 춥고 그랬는데 또 급격히 더워졌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나라가 季節이 明白하고 또 우리 民族的 性格도 가만 보면 우리 민족이 좀 激烈한 것이 있어요. 激情的이고 격렬하고, 또 그러다가도 溫和하고, 同情心 많고, 이것이 다 연류돼 있지 않은가.

음식도 같잖아요? 뜨끈한 만두국을 먹으면서도 얼음이 버석버석한 김치를 먹어야지 우리는 좋아하니까, 그래서 오늘 위원회도 이런 뜨끈한 情熱을 가지고 하고 김치맛처럼 산뜻하게 매듭을 잘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

습니다.

南(朴聖仁) :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축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타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는 이제는 자동스럽게 單一팀이 되는 것으로 既定事實化합니다. 그래서 잘 하라는 것보다는 『아, 이것 祝賀합니다』하고 人事를 먼저 할정도니까 보통 시민들이 단일팀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크다 하는 것도 믿게 되고, 또 축하받는데 期待에 어긋나지 않도록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北(장 응) : 어제 蹴球 報道도 되고, 그것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역시 우리 民族이 偉大하다. 우리나라가 좋고, 우리 민족이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면 다른 나라에서, 分裂된 나라가 이 유일팀을 한적이 있습니다. 한 이백번 會談을 했답니다. 한 이백번, 接觸과 會談이, 한 이백번 했다고 하는데 그사람들도 자기 내노라고 하는 그런 民族입니다. 한때는 世界에서 제일 월등한 民族이라고 했고, 그러나 우리 민족이 역시 제일이다. 우리는 뭐 한 두서너번 해가지고 해제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民族이 偉大하고 우리가 우리 민족이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委員會에서 朴先生이랑 잘 協議를 해서, 서로 양보의 정신으로 해서 이런 위대한 민족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줄음도 잘 안오고 이것 잘해야 되겠다, 어깨가 무겁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南(朴聖仁) : 장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共感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始作을 하도록 할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合意한대로 저희

가 會議는 非公開로 하게 되어 있으니, 兩側이 整理가 되는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記者들 退場 및 場內 整頓)

北(김상부) : 오늘 아침에 몇시에 출발했어요?

南(朴秀蒼) : 오늘 아침에 8시에 출발했어요 서울에서. 여기 오는데 1時間 10分.

南(朴聖仁) : 제가 먼저 發言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1次 實務會談 때는 서로 인사말도 서로 나눴고요, 이번 2次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충분히 兩側案을 한번씩 點檢을 해온 것으로 判斷을 합니다. 그래서 제 意見은 다시 또 南側案, 北側案을 새롭게 설명을 하지 말고 곧장 合意案을 내놓고 그렇게 토의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討議를 하면 어떨까 하는 提案을 합니다.

北(장 응) : 먼저 말씀하십시오.

南(朴聖仁) :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複寫版도 받았습시다마는 새로 北側案도 새로 나왔죠?

北(장 응) : 예.

南(朴聖仁) :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合意書 案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지난번 같이 저희 合意書 案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提案을 합니다.

北(장 응) : 그래서 그저 오늘 따로 차려서 公式發言을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 갑니다.

먼저번에 우리가 전적으로 雙方이 내놓은 案들 대조해 보면 기본상 다 같고, 또 합의가 다 됐습니다, 基本問題 合意가 다 됐고. 처음에 選手選拔 訓練에 대한 問題, 두번째가 選手團 構成·管理에 대한 問題, 셋째가 選手團 團服 및 裝備, 운동복 등에 대한 문제, 네번째가 會議參加에 대한 문제, 다섯번째가 기타 유일팀 구성과 관련해서 제기된 문제, 여섯번째가 效力에 대한 문제, 대체로 이런 순서로 雙方의 案이 맞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번 1次 委員會에서 제 생각에는 合意가 다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貴側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고, 또 合意가 다 됐습죠? 다만, 意見이 엇갈려 있는 것이 結團式과 解團式 문제다. 그러니까 貴側에서 合意書案을 처음부터 다 읽어내려 가고, 우리가 만들은 것도 다 읽어 내려가고 하면 조금 진부한 맛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結團式·解團式 問題만 合意하면 다 합의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文案整理는 아무래도 따로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도 하나 하나 몽땅 다하면 時間이 없을 것 같은데.

南(朴聖仁): 그거는 제가 볼때는 굉장히 좋은 提案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合意한 사항이지만 選手選拔, 名單이라든가 조편성이라든지 하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거기에는 제가 볼때 爭點事項은 없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조편성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장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상충됐던 結團式·解團式 案을, 상충됐지만 그것 하나로 저희가 볼 수 있었거든요. 그것부터 먼저 토의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南(朴秀蒼)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南北間에 基本的으로 意見이 맞지 않는 것은 결단식, 해단식 이외의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전번 회의에서 분명히 合意가 이루어졌는데, 오늘 雙方이 文案을 調整하기 위해서 별도로 모임을 한번 갖는다면, 그런 절차를 밟겠다고 한다면 記錄을 위해서라도 읽는 그런 節次는 거칩시다. 뭐 읽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니까.

北(장 응) : 그러니까 그쪽에서 委員長先生 계속 그렇게 꼭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다른 의견은 없는데 아무래도 文案整理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래도, 따로 문안정리를 해야 된다.

南(朴秀蒼) : 아니, 文案整理를 하는데 南側에서 내놓은 것은 어떤 것이고, 北側에서 내놓은 것은 어떤 것인데 서로 그 다음에 文案調整 過程을 밟아서 이렇게 合意가 됐다. 이렇게 進行을 하는 것이 順序가 아닐까?

北(장 응) :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먼저번에 貴側에서 내놓은 案에 다 맞췄습니다. 아마 필경 또 그쪽에서는 우리 안에 맞췄을 수 있겠다. 그런 問題가 또 엇갈리기 쉬운데, 어제 蹴球에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問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根本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거기에는 字字句句 따질 것도 없고 內容이 같으면 되는 것이니까 큰 문제 없고, 제 생각에는 結團式·解團式 問題만 여기서 낙착이 되면 곧 문장 맞추고 文案整理에 들어 가면 될테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南(朴聖仁) : 그래서 장위원장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朴委員 發言하신 것은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조금 늦더라도 午前會

議에서 文案整理까지 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이 卓球合意書를 分析해 보면 語彙만 좀 問題가 있지, 문안정리에는 시간이 안 걸릴 것 같으니까 별도로 축구같이 두분 두분씩 文案調整委員會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도 여기에서 하나하나 짚어서 어휘가 다른 것을 여기에서 調整해 버리면 두가지 일을 한번에 끝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朴委員 發言內容으로 아실거고, 그렇게 하면 時間을 더 節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北(장 응) : 그러면 먼저 結團式·解團式 部分만 먼저 읽어주십시오. 그렇게 먼저 읽고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도 아무래도 우리 것도 읽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南(朴聖仁) : 그것 먼저 調整하고 전반적인 조정을 하자, 그말씀이죠?

北(장 응) :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으니까.

南(朴聖仁) : 그럼 그렇게 爭點事項을 얘기를 하죠.

南(朴秀蒼) : 그래도 한번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北(장 응) : 朴秀蒼先生 자꾸 읽자니까 한번 읽읍시다.

南(朴秀蒼) : 시간 걸리는 일도 아니고, 이거 얼마나 걸린다고.

南(朴聖仁) : 저희가 複寫本이 있는데 건네 드리겠습니다.

北(장 응) : 예, 주십시오.

(北側에 우리側 合意書案 傳達)

南(朴聖仁) : 그러면 먼저 제가 우리側 案을 읽어 가겠습니다.

##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실무위원회 합의서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에 의거하여 탁구단일팀 실무위원회는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1. 선수선발 및 훈련

#### 가. 협의에 의한 선수선발

- (1) 대회에 참가할 선수는 국제탁구연맹으로부터 쌍방 탁구협회에 배정된 인원과 연맹랭킹 규정에 의해 자동적으로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인원으로 한다.
- (2) 각 종목(단체전, 개인단식, 개인복식, 혼합복식)에 출전하는 선수는 쌍방이 협의·결정한다.
  - (가) 여자단체전에 참가하는 선수(4명)는 남측 2명, 북측 2명으로 구성한다.
  - (나) 남자단체전에 참가하는 선수(5명)는 남측 2명, 북측 2명으로 하고 나머지 1명은 쌍방간에 기술적 검토와 협의를 통해 선발한다.
  - (다) 개인단식전에는 상기 (1)항의 선수전원이 출전하되, 쌍방은 순위를 명기한다.
  - (라) 개인복식 및 혼합복식전에는 쌍방 각 1명으로 구성·출전하되, 제40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89.3 도르트문트)의 혼합복식전에서 우승한 선수는 예외로 한다.



## 나. 선수 훈련

- (1) 선수훈련은 대회현지에서 실시하며 그 기간은 3월 24일부터 4월 23일까지 1개월로 한다.
- (2) 선수훈련시의 수송, 숙식, 의료 등 제반 편의사항 및 훈련장소는 쌍방 탁구협회 또는 단일팀실무위원회 공동위원장 명의로 대회조직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한다.
- (3) 상기항의 공통사안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한다.
- (4) 선수훈련과 관련한 행정사항은 쌍방의 총무가 관장하여 처리한다.
- (5) 선수 및 임원들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의료 또는 기타 기술요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선수단 구성 및 관리

가. 선수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단 장 : 1명 (복측)
- 고 문 : 4명 (남북 각 2명)
- 총 감 독 : 1명 (남측)
- 감 독 : 2명 (남자는 복측, 여자는 남측)
- 코 치 : 4명 (남북 각 2명)
- 선 수 : 남자 12명 (남북 각 6명)  
          여자 10명 (남북 각 5명)
- 협 회 이사 : 2명 (남북 각 1명)

- 전 문 가 : 2명 (남북 각 1명)
- 총 무 : 2명 ( " )
- 섭 의 : 2명 ( " )
- 공 보 : 2명 ( " )
- 통 역 : 2명 ( " )
- 의 료 : 2명 ( " )
- 촬 영 : 2명 ( " )

< 총 계 > 50명 (남측 25명, 북측 25명)

#### 나. 참가신청서 제출

- (1) 대회참가신청서는 단일팀실무위원회에서 선수명단이 확정되는 즉시 2통을 작성하며,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하여 제41회 세계탁구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각기 발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 (2) 참가신청서는 늦어도 3월 15일 이전에 발송한다.

#### 다. 참가신청서 제출후 선수단 문제발생시 해결방안

- (1) 선발된 선수가 부상,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대회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에서 선발하여 충원한다.
- (2) 그 이외의 문제발생시에는 사안별로 단일팀실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처리한다.

#### 라. 선수단 결단식 및 해단식

- (1) 선수단 결단식과 해단식은 관문점에서 거행하며 결단식은 합동훈련 출발직전에, 해단식은 대회종료 귀환직후에 한다.

그래서 「라」항에 지금 장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저희도 지난번 1차회의 때 북측의 안을 저희가 잘 들었고 또 저희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하고 저희 자체회의도 했지만 여러 곳에 의견도, 저희가 의견도 참작을 해봤고, 분단이후 유래없는 첫 단일팀 출전에 결단식과 해단식은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측의 같은 의견일치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제안했던 장소문제에 어려움이 있다면 결단식은 단장을 맡으신 북측 「통일각」에서 결단식을 하고 또 해단식은 귀환직후에 남측 「평화의 집」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측 제안을 합니다.

(2) 선수단은 남과 북에서 각기 출발하며 늦어도 3월 23일까지 현지에도착한다. 이것은 귀측안을 저희가 전폭 수용을 했습니다.

### 3. 선수단 단복 및 참가에 필요한 경비

가. 단복과 운동복을 분리하여 단복은 북측에서, 운동복은 남측에서 준비한다.

나. 개인지참용구(탁구채, 고무 등)는 각자 확보하고, 공동사용 용구(공, 고무풀, 수건 등)는 공동으로 구입한다.

다. 단일팀 단복과 운동복 그리고 각종 장비에는 단일팀 단기표지 이외에 다른 표지는 할 수 없다.

단, 트레이닝복의 가슴에는 단일팀 단기표지 밑에 우리말로 『코리아』를, 등에는 영어로 『KOREA』를 새겨넣는다.

4. 대회기간중 열리는 각종 회의참가

가. 대회기간중 열리는 각종 회의란 대표자회의, 대진표 작성 등과 관련된 회의를 말한다.

나. 대회기간중 열리는 각종 회의에는 회의성격에 따라 현지에서 쌍방이 합의하여 필요한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가시킨다.

5. 기타 사항

가. 단일팀 단가(녹음테이프와 악보)는 남측에서, 단일팀 단기는 북측에서 준비한다.

나.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공식적으로 초청받은 국제심판은 단일팀선수단 구성에 구애받지 않는다.

6. 본 합의서는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2월 27일                      판   문   점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탁구협회 회장의

탁구협회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위임에 의하여

탁구단일팀실무위원회

탁구유일팀실무위원회

남측 공동위원장

북측 공동위원장

박   성   인

장            응

이상 저희측 合意書 案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위원장님께서도 저희 爭點事項을 처음부터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 자신들도 이 문제만이 하나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出發, 歸還은 北側案을 저희가 절대적으로 受容을 했고, 結團式, 解團式은 저희가 修正案으로서, 이런 분단이후 최대의 民族的 大事를 우리 선수들이나 우리 민족 앞에서 이런 의식행위를, 미흡하지만 板門店에서라도 거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측 의견입니다.

南(朴秀蒼) : 하나 案内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5페이지 『3. 선수단 단복 및 참가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경비」는 글자가 誤字가 생긴 것입니다. 「장비」로 그렇게 고쳐주세요.

南(朴聖仁) : 필요한 「경비」가 아니고 「장비」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誤字가 나왔습니다.

北(장 응) : 이제 朴委員長先生 貴側의 修正된 合意書 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우리도 상당한 정도로 수정을 했는데 이 수정한 合意書 案을 한번 읽고…….

南(朴聖仁) : 修正된 合意書 案 여분이 있습니까?

北(장 응) : 이거 넘겨 드릴까? 이거 넘겨 주세요. (北側으로부터 合意書案 接受)

제가 한번 쪽 읽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41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유일팀실무위원회 합의서(안)

북남탁구유일팀 실무위원회는 제41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북남유일팀구성 및 참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1. 선수선발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1) 협의에 의한 선수선발

- (1) 국제규정에 따라 국제탁구연맹으로부터 배정된 선수는 쌍방 협회가 각기 임의로 선발한다.
- (2) 국제탁구연맹 선수등급순위규정에 따라 자격을 획득한 선수는 자동적으로 출전한다.
- (3) 위의 (1), (2)항을 토대로 각종목(단체전, 개인단식, 개인복식, 혼성복식)의 명단은 아래와 같이 한다.

#### ① 여자단체전 (4명)

북측 2명, 남측 2명을 다음과 같이 각각 추천하여 구성한다.

리분희, 유순복 (북측)

현정화, 홍차욱 (남측)

#### ② 남자단체전 (5명)

북측 2명, 남측 2명을 다음과 같이 추천해 우선 구성한다.

김성희, 리근상 (북측)

유남규, 김택수 (남측)

나머지 1명은 쌍방사이의 기술적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선발한다.

③ 개인단식

우의 (1), (2)항 선수전원이 출전하며 선수 순위와 명단은 별지에 첨부한다.

④ 개인복식 및 혼합복식

쌍방이 1명씩 추천하여 전체조를 복남선수로 혼합구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훈련참가인원수

훈련에 참가할 선수 및 역원 수는 복과 남이 같은 수로 하되 남자선수 복남 각각 6명, 여자선수 복남 각각 5명이(계 22명)으로 한다.

3) 훈련시의 수송, 숙식, 의료 등 제반 편의사항

쌍방 공동위원장들의 공동명의로 대회조직위원회에 제반사항의 협조를 요청하며 교섭결과에 따라 해당 조치를 취한다.

4) 선수훈련과 관련한 행정, 의료 및 기술인원 등 보장인원에 관한 사항

선수단구성에 포함되는 인원들로 보장한다.

2. 선수단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선수단 단장 및 역원 선정에 관한 사항

- 선수단 단장은 북측이 맡는다.
- 총감독은 남측이 맡는다.
- 고문은 쌍방 각각 2명씩(계 4명)으로 한다.
- 책임지도원은 쌍방 각각 1명(계 2명)으로 북측이 남자팀책임지도원

을, 남측이 여자팀책임지도원을 맡는다.

귀측의 감독에 해당되겠습니다.

- 지도원은 쌍방이 남녀지도원 2명씩(계 4명)으로 한다.

2) 행정, 의료, 역원 등 선정에 관한 사항

- (1) 총무, 대외, 공보, 의료, 통역 등 5개부서를 두고 쌍방 각각 1명씩 (계 10명)으로 한다.
- (2) 탁구협회 리사, 전문가를 쌍방 각각 1명씩(계 4명) 동반한다.
- (3) 과학연구를 위한 촬영가를 쌍방 각각 1명씩(계 2명) 동반한다.

3) 선수단관리에 관한 사항

- (1) 선수단관리는 단장이 책임지고 한다.
- (2) 단장이 부재시에는 총감독이 단장을 대리한다.  
총감독은 선수단의 훈련과 경기를 감독하며 남·녀 팀의 책임지도원을 지도한다.
- (3) 고문은 단장과 총감독의 자문역할을 한다.
- (4) 총무는 선수단의 일정을 조직하고 집행하며 숙식, 수송 등 편의와 재정 등을 총괄한다.
- (5) 대외는, 그쪽의 섭외에 해당되겠습니다. 국제탁구련맹과 조직위원회 및 다른 선수단과의 대외업무를 맡아 수행한다.
- (6) 공보는 선수단공보사업을 담당한다.
- (7) 의료는 선수단성원들의 치료와 건강관리를 담당한다.
- (8) 통역은 선수단의 통역을 담당한다.



(9) 협회리사는 리사회 회의에 참가하며 책임지도원과 지도원들을 협조한다.

(10) 전문가는 책임지도원과 지도원들을 협조한다.

(11) 책임지도원은 지도원들과 협의하여 훈련계획을 작성하고 훈련 및 경기를 집행하며 지도원들을 지도한다.

(12) 지도원은 담당선수들의 훈련 및 경기를 지도한다.

(13) 과학촬영가는 훈련 및 경기에 대한 과학기술촬영을 담당한다.

#### 4) 참가신청서제출에 관한 사항

참가신청서는 선수단구성이 합의된데 따라 쌍방 공동위원장 명의로 작성, 제출한다.

#### 5) 참가신청서제출후 선수단문제발생시 해결방안강구에 관한 사항

(1) 선수가 사정으로 인하여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측 협회에서 다시 추천한다.

(2) 그외의 문제발생시에는 건별로 실무위원회에서 협의 처리한다.

#### 6) 선수단결단식과 해단식의 시기, 장소 및 구체적방법에 관한 사항

(1) 결단식과 해단식은 대회현지에서 진행한다.

(2) 결단식과 해단식방법은 쌍방이 협의하여 확정한다.

#### 7) 선수단의 출발, 귀환과 관련한 수송 및 경로 등에 대한 사항

(1) 선수단의 출발과 귀환은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2) 선수단의 일본도착날자는 3월 23일(토요일)까지로 한다.

3. 선수단 단체복 및 대회참가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사항

- 1) 단체복은 북측에서, 운동복은 남측에서 준비한다.
- 2) 개인지참용품(탁구채, 고무 등)은 각기 확보하고 공동사용용품(공, 고무풀, 수건 등)은 공동으로 구입한다.
- 3) 선수단 단체복과 경기복 및 훈련복 등 일체 행장품과 장비에는 유일팀 기발표식외에 다른 표식을 하지 않는다.  
트레닝가슴에는 유일팀기발표식밑에 우리 말로 <코리아>를, 잔등에는 영어로 <KOREA>를 새겨넣는다.

4. 대회기간중 열리는 각종 회의에는 회의성격에 따라 현지에서 쌍방이 합의하여 필요한 대표 또는 대표단을 구성, 참가시킨다.

5. 기타 유일팀 구성 및 참가에 관한 사항

- 1) 선수단 기발은 북측에서, 노래(록음테프와 악보)는 남측에서 준비한다.
- 2) 유일팀기발도안과 노래록음테프 견본은 실무위원회에서 협의 확정한다.

6. 본합의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2월 일

관 문 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탁구협회 위원장의  
위 임 에 의 하 여

탁구유일팀실무위원회  
북측공동위원장 장 옹

대한민국 탁구협회  
회 장 의  
위 임 에 의 하 여

탁구단일팀실무위원회  
남측공동위원장 박성인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貴側의 案과 우리 案을 雙方이 각기 서로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역시 다른 問題는 크게 차이나는 것이 없고, 다만 文章上 複式組 構成問題와 關係해서 그쪽에서는 具體化했고 우리는 原則的인 線에서 선을 그었고, 그것은 별 問題가 없고, 혼련기일 問題는 귀측에서 밝혔고, 參加申請書 3월 15일까지로 밝힌 것이 있습니다.

會議問題와 關係해서 회의란 代表者會議, 대진표 작성을 위한 회의로 규정을 했고 이것들이 쌍방 오늘 다시 만든 合意書에서 약간씩 차이가 났는데 이것은 내용은 다 같습니다. 내용은 같고, 내용은 하나도 차이나는 것이 없고, 다만 結團式과 解團式의 問題가 아직도 쌍방간에 差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結團式과 解團式 問題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結단식, 解단식 問題가 현재 우리가 北과 南이 올림픽위원회 대표들 사이의 會談에서 제41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北南이 유일팀을 구성해서 참가하며, 제6차 청년축구선수권대회에 北과 南이 유일팀을 構成해서 참가하는데 合意한 이후 實務委員會가 進行되고 있는 조건에서 結團式과 解團式 問題가 우리가 41차 탁구선수권대회에 유일팀으로 참가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데는 영향을 줄 수 없는 副次的인 問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 貴側에서도 同意를 하실 것입니다.

털어놓고 말하면 선수들, 유일팀 깃발을 가지고, 유일팀의 團服을 입고, 유니폼을 입고 탁구채와 탁구공을 가지고 地바에 가서 選手權大會에 參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貴側에서 누누이 강조했고 우리도 여러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 民族이 분단된 이래 처음으로 되는 民族的 慶事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단식과 해단식을 하자』 이렇게 토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 雙方이 처한 형편으로 봐서, 가장 上策의 方途가 日本現地에서 하는 것이라고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도가 가장 상책이다. 이것만이 雙方의 부담을 하나도 주지 않고 결단식과 해단식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最上의 方途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주장하고 있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같습니다.

이것을 부담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방도가 이것이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일본 전지에 가서 結團式과 解團式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느냐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貴側도 알고 있고 우리 民族도 알고 있고 世界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환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時間을 허비하지 말고 빨리 妥結해서, 측구에 뒤늦은 우리가 回復을 하자면, 이것 빨리 妥結하자. 그래서 우리 案에 貴側에서 同意해 나올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南(朴聖仁) : 장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중엔 지난번 1次會議 때 말씀하고는 차이가 없으신 것으로 저희가 理解를 합니다. 저희는, 北側의 意見을 저희가 깊이 受容하려고 노력을 했구요. 두가지 쟁점이었습니다.

하나는 結團式, 解團式이었고, 하나는 出發地, 歸還地였는데, 뒤에 문제는 저희가 북측의 의견을 받아 들였고. 어저께 이야기를 반복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촉구보다는 잘하자 그런 마음은 아마 양측이 다 마찬가지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北側에서는 評價戰도 다니면서 또 強化訓練도 다니면서 하고, 結團式·解團式 마저도 서울, 평양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탁구는 지금 귀족의 의견을 저희가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修正案을 낸 것인데 『現地에서 하는 것이 부담이 적다』 말씀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처음에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日本 現地에서 結團式을 한다는 것은 結團式이나 解團式의 意義에 부합치 않는다.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보후퇴 해가지고 실제 많은 관중이나 많은 국민들이 있는데서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땅에서, 우리 땅에서 이런 분단이후 최대의 경사를 우리 선수단끼리 만이라도 決意를 다지고, 또 解團하면서 우의를 다지고 이런 것이 저희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貴側이 한번더 깊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北(장 응) : 다시 한가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문점에서 하자』 결국은 같습니다. 결국은 같고, 또 외롭고 쓸쓸하게 해야 된다. 日本에 가서 하면, 現地에 가서 하면, 우리쪽 사정을 朴先生이 뻔히 다 아시겠는데, 왜 축구는 하는데 그런데 우리 卓球은 現地에 가서 하자느냐 이것을 理解를 하셔야 합니다.

일본에 가서 거기도 살점이 있다. 거의 百萬에 달하는 우리 살점이 日本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성대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우리 同胞가 아닌가, 우리 民族이 아닌가. 손가락을 잘라 보십시오. 朴秀蒼先生 손가락 짜르고 내 손가락 잘라 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우리 同胞들 손가락 잘라 보십시오. 피가 같습니다. 왜 거기에서 하면 안 됩

니까? 그래서 그저 우리 案에 同意했으면 좋겠습니다.

南(朴聖仁): 장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 들었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여기서 어떤 말의 對立을 하거나 어떤 表現이 지나친지는 모르겠지만 말싸움 같은 것은 할 전혀 그런 意思가 없습니다.

北(장 응): 朴秀蒼先生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 회진서기장동지 내내 얘기 하는데.

南(朴聖仁): 그래서 지금 장위원장님 말씀을…….

北(장 응): 또 이거 朴秀蒼先生 잘 알지만 나도 말싸움하는 것 즐기지 않습니다.

南(朴聖仁): 그래서요. 現地에서 하는 문제, 이런 것은 제가 반복되지만 우리 동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살점이나 마찬가지인데, 반면에 1億이 넘는 일본사람들이 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더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現地에서 한다는 提案을 하신 것도 사실은 그쪽의 완벽한 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다 서로 理解해야 할만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提案하신 것으로 判斷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장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이 다음에 시간이 걸릴 문제가 뭐냐하면 選手團名單하고 複式組를 편성하는 문제가 그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문제만 討議하면 시간을 우리가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먼저 會議하는 方式을 쟁점사항은 조금 뒤로 놔두고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부터 始作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提案을 합니다.

北(장 응): 朴先生 말씀을 다 理解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두고 한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것인데, 오늘 끝장을 봐야 합니다.

南(朴聖仁) : 時間이 많이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 걸릴 필요가 없고.

北(장 응) : 이것 오늘 끝장을 봐야 됩니다.

南(朴聖仁) : 당연하지요. 저희들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北(장 응) : 아,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것 토론하지요.

南(朴聖仁) : 똑같은 마음이고, 그다음에 선수 문제를 하기전에 일본 조직위원회에서 저희가 連絡을 받은 事項이 北側에도 갔다고 連絡을 들었는데, 첫째는 기존 확보된 선수들 다 出戰하는 문제 받으셨지요? 연락 받으셨습니까?

北(장 응) : 예, 예.

南(朴聖仁) : 그러면 저희도 받았으니까, 그대로 저희가 1차때 提案하고 受容하신대로 21명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兩側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사람이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北(장 응) : 昌濟先生 수고가 많았습니다.

南(金昌濟) : 감사합니다.

北(장 응) : 그다음에 우리도 연락을 하나 받은 것이 있는데 그쪽에도 連絡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訓練場所 문제와 관련된…….

南(朴聖仁) : 연락받았습니다.

北(장 응) : 받았습니까? 됐습니다. 다 착착 되는데…….

南(朴聖仁) : 그러면 選手名單부터 제출할까요?

北(장 응) : 예. 그렇게 합시다. 選手名單. 朴先生하고 우리는 좀 쉽시다.

南(朴聖仁) : 그러시죠.

北(장 응) : 아주 잘 바로 마주 앉았는데.

南(朴聖仁) : 우리 김희진서기장하고 우리 김전무하고 좀 명단…….

北(김희진) : 자 그러면 우리선수 명단을 먼저 말씀하겠습니다.

남자선수 : 김성희, 리근상, 김국철, 리승일, 김명준, 최경섭

여자선수 : 리분희, 유순복, 안희숙, 김혜영, 한혜성

다 아는 選手들일 것입니다.

南(金昌濟) : 이숙이가 빠졌는데요 ?

北(김희진) : 이숙이가 빠졌을 것입니다.

南(金昌濟) : 그 경섭이가 왜 그렇게 밑으로 내려 갔어요? 경섭이 그 中國 하고 할 때 잘 하던데…….

北(김희진) : 우리 다 選拔戰을 해서, 격렬한 選拔戰 끝에 順番이 다 정해진 것입니다.

南(朴聖仁) : 다 알만하구만요.

南(金昌濟) : 우리側 選手를 發表하겠습니다.

남자선수 : 유남규, 김택수, 박지현, 강희찬, 추교성, 이철승

여자선수 : 현정화, 홍차옥, 홍순화, 박경애, 박해정

이렇게 남자선수 6명, 여자선수 5명을 말씀드렸습니다.

北(김희진) : 이태조가 빠졌구만 ?

南(金昌濟) : 예, 우리도 選拔戰을 거쳐서 選拔한 것입니다. 그러면 복식조를 말씀할까요 ?

南(朴聖仁) : 그건 얘기하지 말고 서로 한명씩 내가지고 우리 준비된 것보



다는 그걸 코칭스텝한테다가…….

北(장 웅) : 朴先生 그 問題에서 그쪽에서 대체적으로 選手들을 아니까 아마 組를 編成해 가지고 나오셨겠죠? 예상되는 것.

南(朴聖仁) : 그래서 豫想되는 것이 뭐냐하면…….

北(장 웅) : 그쪽 나름대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했거든

南(朴聖仁) :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남자 같으면 김성희가 먼저죠? 그러면 우리 빨리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檢討하지 말고 김성희하면 유남규, 그것을 意見이 맞는 것은 그렇게 제껴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北(김희진) : 제가 대체로 다 서로 파악했으니까.

남자 복식조 : 1. 김성희 유남규, 2. 김국철 김택수, 3. 리승일 강희찬.

南(朴聖仁) : 승일이가 전형이 어떤 전형이에요?

北(김희진) : 靑少年大會 일본 나고야에서 있는 靑少年 個人戰에서 1등한 왼손잡이 감아잡기 선수.

南(朴聖仁) : 그렇게 하면 이것 둘은 좋구요. 강희찬이도 이렇게 저희가 일단 받아놓고 봅시다. 이 둘은 국철이 택수까지는 아주 좋구요.

北(김희진) : 승일이 주니어 경기에서 1등하고 좋아요. 그 다음에 4. 김명준 박지현, 5. 최경섭, 우리는 문규문이 생각하고 문규문이 넣었는데 이번에 남자가 없으니까 이렇습니다.

리근상선수가 방어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방어수가…….

南(朴聖仁) : 調和가 좀 問題가 되지요.

北(김희진) : 근상선수는 좀 빠졌습니다.

南(朴道天) : 그런데 그쪽의 개인전 엔트리가 다섯사람인데 그 다섯사람 이외에 지금 이근상이 빠지고 이 다섯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北(김희진) : 예, 그 通知文을 못 받은 것 같은데 제41차 탁구선수권대회 조직을 위한 지도서 3에, 2항에 밝혀져 있습니다. 複式組 編成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무방합니다.

北(장 응) : 제가 읽겠습니다.

2.3 In doubles, each Association may enter as many men and women as it is entitled to enter in singles. These players may be paired together or with players of other Associations and they need not be the same players as are entered in singles.

이렇게 돼 있습니다.

北(김희진) : 복식조 김승일 하나하나 討論합시다.

두번째까지는 다른 의견 없겠지요?

南(朴聖仁) : 유남규, 김택수 좋고요.

北(김희진) : 국철이, 김택수.

南(朴聖仁) : 국철이, 김택수 좋고요. 승일이 강희찬이는?

北(김희진) : 좋습니다.

南(朴聖仁) : 명준이 지현이 좋고, 그 다음에 경섭이면 우리 추교성이가 나가야 되고.

北(김희진) : 추교성이 왼손잡이죠?

南(朴聖仁) : 왼손잡이.

北(김희진) : 전번에 주니어에 나왔던 추교성, 남자는 다른 意見이 없습죠?

南(朴聖仁) : 좋습니다.

北(김희진) : 그다음에 여자복식 : 1. 리분희 한정화, 2. 유순복 홍차옥, 3. 한혜성 홍순화.

南(朴聖仁) : 좋고. 기술자들의 이야기는 큰 차이는 없어요.

北(김희진) : 4. 안희숙 이태조로 했는데 태조가 안 나오니까 이것은 봅시다.

南(朴聖仁) : 누구요? 네번째가?

北(김희진) : 안희숙.

南(朴聖仁) : 안희숙, 이질고무쓰는 아이죠? 날카롭게 생긴 아이, 안희숙이 있고.

北(김희진) : 그 다음에 5. 김혜영 박경애 했던 말이에요.

南(朴聖仁) : 김혜영이가 어떤 전형이에요?

北(김상부) : 이번에 아시아選手權大會 공격수, 안경끼고 나갔던 선수, 유순복이하고 같이.

南(朴聖仁) : 알았는데 우리 전형이 우리는 박경애는 돌출고무에 속공이에요.

北(김희진) : 알고무 속공.

南(朴聖仁) : 그 다음에 박혜정이는 평면고무에 예를들면 主武器가 회전이에요.

그래서 나는 김혜영이도 회전 주전 아닙니까?

北(김희진) : 回轉 하는데 速度競技 위주로 하는 선수니까…….

南(朴聖仁) : 둘 다? 안희숙이가 速度競技, 안희숙이가 변칙이나 마찬가지로.

北(김희진) : 안희숙이는 뒤에 특수라바 대고 競技形態는 다 비슷하고, 김혜

영이는 뒤에 알고무인데 특수라바는 아니고 오른쪽은…….

南(朴聖仁) : 아니죠. 그것이 해정이하고 같으니까 해정이하고 혜영이를 묶고, 왜 그러냐 하면 안희숙이가 이질의 變則型이거든, 변칙형하고 돌출고무하고 묶고 그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하는데……. 그 생각을 우리가 지금…….

北(김희진) : 그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실력적으로 누가 나아요?

南(朴聖仁) : 같애.

北(김희진) : 같애? 그러면 안희숙이하고 누구?

南(朴聖仁) : 박경애.

南(金昌濟) : 박경애는 돌출고무, 펜홀더고. 박혜영이는 세이크핸더 그립에 양 핸드…….

南(朴聖仁) : 악수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北(김희진) : 좋습니다.

南(朴聖仁) : 그래야 전형이 맞는 것 같아요.

北(김희진) : 안희숙이하고 박경애, 김혜영이하고 박해정?

南(朴聖仁) : 박해정, 바다 「해」자 해정, 이것이 조화가 맞을 것 같은데요.

박해정하고 안희숙하고 박경애 좋죠?

北(김희진) :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혼성복식, 그래서 이 혼성복식을 委員長님께서 간단히 얘기가 있었지만, 그저 우리가 이번에 북남유일팀을 構成해서 전체 7천만 겨레에게 기쁨을 주고 동시에 唯一팀을 만든 것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좋은 결과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成績을, 지난 시기

가지고 있던 전적은 하나는 좀 고려하자 해서 우리가 충분히 研究를 해서 그런 案을 提起했는데 첫째 김성일, 리분희, 두번째 유남규, 현정화.

南(朴聖仁) : 조금 천천히 불러 보세요. 유남규, 현정화.

北(김희진) : 이 것 살리고 그 다음 나머지는 다 이제 혼합해서 하는데 세째로 김국철 홍차옥, 네번째 김택수 유순복, 다섯번째 리근상 홍순화, 여섯번째 박지현 김혜영, 일곱번째 리승일, 여기 이태조로 되어 있는데 태조가 안 나오니까 요건 내버려두고요. 여덟번째 강희찬 안희숙, 아홉번째 최경섭 박경애, 열번째로 문규문이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규문이가 안 나오니까 요거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혜성 이렇게 봤단 말입니다.

南(朴聖仁) : 한혜성 요거는 수비가 하나 나왔네.

北(김희진) : 방어수.

南(朴聖仁) : 그리고 우리 지도원이 한 것 김專務 안 가지고 있나?

南(金昌濟) : 예. 지금 복사하러 갔습니다.

南(朴聖仁) : 그러면 한번 調和를 해보지, 여기 유남규 현정화 맞고, 김성희 리분희 이것도 좋구요. 김택수 유순복이도 좋고, 강희찬이, 우리는 강희찬이 한혜성으로 해놨네, 강희찬이를 한혜성하고

北(김희진) : 홍차옥이는 어떻게 해요? 김국철, 홍차옥.

南(朴聖仁) : 홍차옥이는 누구하고 했나 하면…….

南(金昌濟) : 김성희하고, 김성희를 넣었으니까는.

南(朴聖仁) : 아니,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홍차옥이를 말하자면 힙 있는 회전공이거든. 그래서 저쪽에는 최경섭이를 우리가 봤어요.

그것은 안 좋다. 이말이죠? 그러면 여기는 누구하고 넣나 하면 김국철이

홍차옥이가 지금 우리 選手지만, 이걸 뭐라 그러냐 우리는 「서브 리시브 (serve receive)」라고 그러는데 北側에서는…….

北(김희진) : 되받아치기.

南(朴聖仁) : 받아치기?

北(김희진) : 예.

南(朴聖仁) : 쳐넣기 받아치기?

北(김희진) : 예.

南(朴聖仁) : 쳐넣기 받아치기에 조금 홍차옥이가 취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김국철이는 저쪽에서 複式을 잘 하는 선수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묶어 놓기는 김국철이를 박해정이하고, 요놈이 지금 쳐넣기 받아치기 그것을 잘 하거든, 그렇게 잡아 넣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北(김희진) : 그래서 홍차옥이야 國際競技 經驗上으로도 그렇고 홍차옥이 낮지 않아요?

南(朴聖仁) : 전반적으로 그런 면은 있어요. 그러면 이것 지도원들이 낸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받지는 않고 이것을 검토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案은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北(김희진) :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차옥이 여러 번 다 파악했고 우리 국철이가 왼손잡이고 잘 한단 말입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 경기에서도 1등하고.

南(朴聖仁) : 그 성희하고 하는 것 봤죠. 성희하고 하는 것 보고.

北(김희진) : 그러니까 홍차옥이 하는 것이 낮지.

南(朴聖仁) : 그래서 박해정이하고 또 왼손잡이가 있어요. 그래 우리나라에서나 세계적으로 현정화, 홍차옥이가 복식이 제일 센 것으로 나타나 있거

든요. 개들을 두달동안에 세번 다 이겼어, 박해정이하고 왼손잡이가 그래서, 뭐 어떻게 한다는 것 보다는 강한 팀을 만들려머는 오히려 박해정이가 우리 서비스하고 리시브에 강점이 있다. 그런…….

北(김희진) : 반고무 속공선수라고?

南(朴聖仁) : 아니, 그것은 박경애고.

北(김희진) : 누구?

南(朴聖仁) : 박해정. 바다 「海」字.

北(김희진) : 그러면 홍차옥이는 누구하고 해요?

南(朴聖仁) : 그래서 홍차옥이를 경섭이를 넣었는데 경섭이 말고 성희빠지고 남규빠지고…….

北(김희진) : 그렇다면 승일이…….

南(朴聖仁) : 승일이 어떻습니까? 複式戰은?

北(김희진) : 좋아요. 승일이하고 홍차옥이하고.

南(朴聖仁) : 승일이가 홍차옥이와 되고, 그다음에 국철이하고 박해정이가 되고, 최경섭이 박경애 이것도 괜찮고.

北(김희진) : 하나 하나 내려갑시다. 그러니까 국철이하고 박해정이, 김택수 유순복 좋고, 리근상 홍순화 좋고, 박지현이 김혜영이 좋고, 리승일 홍차옥이 좋고, 강희찬이 안희숙이 좋고, 최경섭 박경애 좋고.

南(朴聖仁) : 그러면 여기 하나는 최경섭이 들어가면 여기는 이철승이가 들어야 되네. 하나 하나 交代한다면, 애들 혼성복식 애들.

南(金昌濟) : 여기 박지현이를, 지금 김혜영이를 박지현이랑했는데 박지현이를 우리는 혼합복식에서 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거든.

北(김희진) : 그렇게 하면 누구입니까?

南(金昌濟) : 김혜영이하고 추교성이를 넣고, 왼손잡이 드라이브하는 애. 그리고 저 쪽에서 하나 남은 게 누구라고?

南(朴聖仁) : 한혜성이.

北(김희진) : 한혜성이?

南(金昌濟) : 한혜성이하고 이철승.

北(김희진) : 이 選手가…….

南(金昌濟) : 애도 펜홀더로 드라이브…….

南(朴聖仁) : 靑少年大會에 많이 나갔던 아이예요. 아주 다부지고…….

한번 제가 整理할까요?

混合複式, 유남규 현정화, 김성희 리분희, 김택수 유순복, 리근상 홍순화, 추교성 김혜영, 이승일 홍차욱, 강희찬 안희숙, 최경섭 박경애, 이철승 한혜성 그러면 우리 지도원들이 한 것의 차이는 여기는 지도원들이 한 것은 4번에, 4번 보세요. 강희찬 한혜성이거든 그 것만 바꿔줄까요?

南(金昌濟) : 한혜성이가 누구하고 하죠?

南(朴聖仁) : 강희찬이, 강희찬이 하고 이철승이를 올리고.

南(金昌濟) : 아, 이철승이를 올리고.

南(朴聖仁) : 우리 지도원들이 한 거를 그렇게 하나만 좀 바꾸십시오.

南(金昌濟) : 그러니까 한혜성이하고 안희숙이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 쪽에서.

北(김희진) : 어떻게?

南(金昌濟) : 안희숙이가 강희찬이하고 하잖수.

北(김희진) : 예.



南(金昌濟) : 한혜성이 이철승이 하고 하는데 그 것만 맞 바꾼다고, 그러니까는 강희찬이하고 한혜성이하고 하고…….

北(김희진) : 그 것은 맞지 않습니다.

南(金昌濟) : 왜?

北(김희진) : 강희찬이도 보니까 複式에서 잘 하더라고.

南(朴聖仁) : 잘 해요.

北(김희진) : 안희숙이가 잘 해요. 연결도 잘 하고.

南(金昌濟) : 한혜성이보다 낫다고?

北(김희진) : 한혜성은 방어선수니까.

南(朴聖仁) : 낫긴 나는데 전형이, 전형이…….

北(김희진) : 아무래도 공격 對 공격이 결합되어야 하니까 攻擊과 防禦에서 는 맞지 않으니까 이제 더 할 것 없습니다.

南(朴聖仁) : 좋습니다. 그러면 그 北側 案을 받아서 이철승이 한혜성으로 합시다. 한혜성으로 하고, 강희찬이 하고 안희숙이 그대로.

그러면 처음에 한대로 그 것으로 完結을 짓죠.

南(金昌濟) : 김혜영이가 어떤 스타일이라고 그랬죠?

北(김희진) : 웨이크 핸드 공격수죠.

南(金昌濟) : 아, 알겠습니다.

南(朴聖仁) : 그럼 여자복식, 남자복식은 이젠 되 재론할 필요가 없죠. 확인 안해도 되겠고. 그 대신에 하나 문제가 개인 단식전에 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청서 낼 때 順位 정하는 문제 하나 있고, 단체전에서 남자를 둘 둘 하고, 하나 우리 경기적으로 檢討하는 問題, 그 것만 남으면 選

手團 構成問題는 끝이 납니다.

그러면 먼저 順位 정하는 문제부터, 제가 이 제안을 하면 이 순위는 南北이 전부 다 각자 國內 順位가 있을 것이예요. 그 것보다 우선 하는 것이 國際順位입니다. 그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남북이 같이 의논해서 넣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北(김희진) : 그래서 우리 선수들의 順位는 그 名單 提起한 그 順位란 말입니다.

南(朴聖仁) : 써오신대로.

北(김희진) : 예.

南(朴聖仁) : 그렇게 하면 지금 일단은 時間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정해 나갑시다.

그 男子單式 1번에는 유남규가 국제순위가 있으니까, 유남규가 1번이 됩니다. 그렇죠? 세계 5위로 되어 있으니까.

2번에 이근상이가 國際順位가 성희보다 올라가 있죠?

北(김희진) : 예. 맞아요.

南(朴聖仁) : 그러면 이근상이가 들어 갑니다.

그다음에 성희가 우리 택수보다 앞에 나가 있을 거예요. 世界順位가 거기 넣어서 가져 왔는데, 거기서 불러봐, 그것을 基準으로 해서.

南(朴道天) : 유남규가 5위, 이근상이가 11위, 김성희가 14위, 김택수가 16위, 주종철이는 안 나왔으니까 빼고, 김기택이도 안 나왔으니까 빼고, 안재형이도 빼고, 거기까지만 參考로 해야 되겠고…….

南(朴聖仁) : 그 다음에 하나 하나, 여자하기 전에 남자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김택수 다음에 5번에 우리 저기 박지현이 들어 갑시다. 5번째. 그 다음에 6번째 국철이 들어가고, 김국철이요. 7번째 강희찬이 들어가구요. 8번째 리승일이야 여기 들어가야 되네요. 9번째 추교성, 10번째 김명준, 11번째 이철승 이렇게 들어 갑니다.

北(김희진) : 다른 것 없습니다.

南(朴聖仁) : 없죠. 그러면 男子順位 이렇게 決定되고 女子順位가.

南(朴道天) : 여자 랭킹 부를게요. 리분희 3위, 현정화 5위, 유순복 17위, 홍차옥 25위, 홍순화 32위, 다음에 조정희 안 나왔으니까 빼고, 그 다음에 한혜성이가 38위, 이태조 안 나왔으니까 빼고, 안희숙이 41위, 강춘덕이도 안 나왔으니까 빼고, 이상…….

南(朴聖仁) : 그겁니까? 그러면 여기다 調和를 하면 북측이 하나, 둘, 셋, 넷, 들어가 있고 현정화 셋이 들어와 있고, 그렇게 하면 8번에요, 8번에 박경애가 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9번에 김혜영, 10번에 박해정, 이걸로 끝나게 되네요. 그리고 이것 의견 없습니까? 아주 빨리 됐네요.

그러면 이 順位는 끝났고, 그 다음에 複式은 아까 부른대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北(장 응) : 複式은 다 됐습니다.

南(朴聖仁) : 그 다음에 지금하나 選手團問題에 대해서, 남자단체전에 지금 둘 둘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견이 없으니까 하나 하나 문제는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貴側에서도 意見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먼저 意見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男子團體戰에 새로운 시험방식으로 이제 거행이 되고요. 또 누

가 주전이 될지 지금 相對國 分析을 해보니까 예를 들며는 리근상이 주전이 될 경우도 있고, 유남규가 주전이 될 경우, 또 김택수가 될 경우, 김성희가 될 경우 다 예상은 되더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근상이가 주전이 될 때는 복식에는 유남규 김택수가 나갈 경우가 생기고, 또 혹시 유남규가 주전이 될 때는 저 쪽의 김성희하고 김국철이가 나갈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저희 측에서 提案을 북쪽의 김성희하고 복식조를 이루는 김국철이를 그런 그 객관적인 분석에 의해서 넣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냅니다.

北(김희진) : 對策 專門家들의 견해라는 것은 여기서 전문가들 協議하는데……. (웃음)

南(朴聖仁) : 틀릴 리가 없어요.

北(김희진) : 朴先生 얘기가 옳습니다. 좋습니다.

南(朴聖仁) : 그러면 그 問題는 일단 다 끝나겠습니다.

北(김희진) : 그러니까 남자단체전 名單에는 김성희, 리근상, 유남규, 김택수, 김국철 이렇게 5명으로 되는 거예요.

南(朴聖仁) : 그렇죠.

北(김희진) : 우리끼리 合意할 것은 다 合意했습니다.

南(朴聖仁) : 예, 합의되고 그 다음에 선수선발문제는 끝나고, 그 다음에 訓練問題 아까 장委員長님 말씀을 하셨는데…….

南(朴道天) :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混合複式은 아까 조만 이야기를 했지? 혼합복식도 우리가 엔트리를 넣으려면 순위가 필요하거든요.

北(김희진) : 그것은 여기서 토론 안해도 거기서 이미 그건 돼 있는게 있겠

어요.

南(朴道天) : 아니 전체 아무래도 우리가 엔트리를 쓸 때…….

南(朴聖仁) : 아까 여기 準備한 것이 있어요. 이대로 나가면 돼요.

南(金昌濟) : 아니 남규하고 현정화가 1위야, 그건 혼합복식은.

南(朴聖仁) : 이 것 아까 적은대로 유남규, 김성희, 김국철, 김택수, 이렇게 내려 가잖아요. 그대로…….

南(朴道天) : 3, 4번이요 국철이하고 해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南(金昌濟) : 아니 3번이 김택수 박해정이고, 김택수 유순복 아니, 내가 읽을테니까 順位 靚찮은가 봐요.

混合複式의 1번이 유남규 현정화, 2번이 김성희 리분희, 3번이 김국철 박해정, 4번이 김택수 유순복, 5번이 이근상 홍순화, 6번이 추교성 김혜영, 7번이 이승일 홍차욱.

北(김희진) : 이것을 조금 바꿉시다.

南(金昌濟) : 어때요. 이것을 강희찬으로 올릴까?

北(김희진) : 강희찬이를 이승일 홍차욱조로 올리고.

南(金昌濟) : 김택수하고 김국철이를 바꿔놓는 것이 어때요? 김택수를 3번으로 넣고, 김국철이를 4번으로 넣고.

北(김희진) : 그렇게 합시다.

南(金昌濟) : 이승일 홍차욱이를 위에다 넣으면 어때요? 6번 이근상 밑에다가, 이근상 홍순화 밑에.

北(김희진) : 그 다음에 7번을 강희찬 안희숙, 그 다음에 8번을 추교성 김혜영.

南(金昌濟) : 9번에 최경섭 박경애, 이철승 한혜성. 이의없죠? 이것은.

南(朴聖仁) :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張委員長님 말씀 중에서 우리 전지훈련 관계, 저쪽에서 온 연락 저도 받았는데 저쪽에서 오기무라회장 의견은 『21일날이나 25일날 오면 자기가 동행하겠다』 그 文案 보셨죠?

北(장 응) : 예, 봤습니다.

南(朴聖仁) : 그래 저희 계획은 지난 번에 귀측에서 提案하신대로 23일 도착해 가지고 24일날 訓練하면 꼭 한달이라는 것보다도 本會談에서 合意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遵守하는 것이 돼서 저희들도 23일날 준비를 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意見이 없으십니까?

北(장 응) : 25일쯤 괜찮잖아요? 24일인데.

南(朴聖仁) : 3월 말씀하시는 거죠?

北(장 응) : 예, 24일이 일요일이니까.

南(朴聖仁) : 3월 24일이 일요일이니까.

北(장 응) : 일요일이 들어가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南(朴聖仁) : 그러니까 23일이죠.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23일이니까. 저희는 지난번에 귀측에서 23일날 출발해서 24일 가면 좋겠다, 그런 提案을 받아 저희는 좋게 일단 同意를 하고 나왔습니다.

北(장 응) : 우리 그것을 本會談에서 合意를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오기무라委員長 意見도 또 參酌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귀측에서 25일이라면 25일로 하고.

南(朴聖仁) : 오기무라회장은 21일이나 25일날 도착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일요일날 피한다면 25일날 도착해도 우리 지장없는 것 아닙니까?

北(장 응) : 지장없을 것 같습니다.

南(朴聖仁) : 그렇게 入國을 25일날로 수정해도…….

北(장 응) : 관계없죠.

南(朴聖仁) : 하루 상관이라면 가능하면 그 쪽에서 준비도 해주는데. 그 쪽이 좋다면 25일날 도착하는 것으로.

北(장 응) : 25일날 도착하는 것으로 합시다.

南(朴聖仁) : 그렇게 하고 시간은 추후에 통보를 하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시 제반 편의사항을 조직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지난 1차 때 合意事項에 대해서 저희가 文案을 作成한 것이 있는데 貴側에서 혹시 準備하신 것이 있는지요?

北(장 응) : 예, 우리도 만들어 왔습니다.

南(朴聖仁) : 오늘 저희가 이걸 다 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한번 저희 쪽 것을 읽어 볼까요?

北(장 응) : 읽어보십시오.

南(朴聖仁) : 누마다 다케시 대회조직위원장 귀하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남북단일팀 선수단(56명)은 1991년 3월 26일부터 4월 23일까지 현지에서 공동훈련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훈련에 필요한 숙소, 훈련장, 수송 및 제반 편의사항의 예약과 준비에 관한 귀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오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훈련은 가능한 한 10일씩 세곳에서 실시하기를 희망하며, 선수단이 불편없이 훈련에 열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귀하의 관심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참 조 : 오기무라 이치로 국제탁구연맹 회장

그 밑에는 저희가 共同委員長 名義의 署名 捺印, 그리고 英文도 저희가 같이 했는데 한번 참고하세요.

北(장 응) : 이것 文案에서 表現만 다르게 하는 것으로 하고 同意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南(朴聖仁) : 오늘 그것도 文案 調整委員會에서 合意해 가지고 오늘 저녁에 다 서명, 수표하는 것으로. 그것은 하나 저희가 있으니까 참고로 가지고 계시죠.

그 다음에 선수훈련 3항에 상기의 공통사안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것은 意見이 저희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 하나 봐주세요. 저희 合意한 3페이지 큰 『2. 선수단 구성 및 관리』 한번 참조를 해주세요.

이 관계는 지난번 貴側에서 提案하신 任員問題인데 저희가 조금 이왕 저희가 貴側 案을 받아가지고 實務委員會에서 合意한 결과 아까 顧問에 대해서는 단장과 총감독을 諮問하는 역할을 한다 말씀하셨거든요? 총감독 밑에 들어가는 것이, 諮問하는 사람이 조금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가운데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 코치, 선수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협회이사, 전문가 또 총무, 섭외, 홍보 문제에 대한 貴側의 업무분담은 저희가 전적으로 同意를 하고요. 순서는 협회이사는 저희로서는 이 밑에 소관부서보다는 조금 경험이 많은 사람이 들어가게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서열을 올렸는데 이 構成問題에 대해서 意見이 있으신지?

北(장 웅) : 이것이 1차위원회 때 다 合意한 內容이니까…….

南(朴聖仁) : 順序만 조금.

北(장 웅) : 順序를 우리는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총감독이 貴側에서 나왔기 때문에 貴側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런 입장에서 그 위에 올린 것인데.

南(朴聖仁) : 괜찮죠. 그러면 이대로 우리가 提出할 때 이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決定할 事項이지만 오늘까지는 그 쪽에서 혹시 단장은 아직 名單이 안 나왔지요?

北(장 웅) : 아직 합의가 안 됐으니까, 다.

南(朴聖仁) : 그러시면 우리가 貴側에서 얘기하는 지도원이나 책임지도원에 대한 명단, 일단 가지고 나왔고 기타 任員은 이 다음 연락관 회의에서 연락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意見이 없으면 이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단일팀 실무위원회에서 選手名單 저희가 申請하는 것은 여기는 世界組織委員會 돼 있는데요. 정식 신청서명단에는 여기 2부를 보내고, 國際聯盟에 1부 보내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아침에 朴理事한테 들

있는데 이것은 文案作成할때 修正을 하시면 될 것 같고, 15일전에 發送한다 하는 것은 저희가 추후에 연락관 회의를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발생시 해결사항

그 다음에 문제발생시 事案別로 이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序頭에서 지적하신 라항입니다.

「선수단 결단식, 해단식」인데요.

다項 (9)項이 제일 爭點事項인데 제가 이렇게 提案을 하겠습니다.

貴側에서는 『1차 때나 2次 때나 現地에서 해야 된다』하는 合意案을 가지고 나오셨고, 南側에서는 1次 때는 양쪽 首都에서 하는 問題하고 2次 때는 저희가 修正案을 냈는데 애초에 張委員長님도 말씀하셨고 저의 意志도 이것이 南北單一팀의 障礙要素가 될 수 없다 하는데는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그 대신에 現地에서 하는 問題는 저희가 理解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兩側의 互惠精神을 發揮해서 저희側에서 板門店에서 하는 것을 取下하면서 現地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주 結團式과 解團式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修正提案을 합니다.

北(장 응): 朴委員長先生 말씀을 주의깊게 들었습니다.

選手團 結團式, 解團式이 唯一팀이 우리 民族分斷 歷史에 처음으로 나온 것인데 이것을 하지 않는, 그만두자 하는 意見을 提起하셨는데 이 좋은 것 이거 뭐 일본에 가서 하지 왜 안 하겠습니까? 이것은 좋은 것인데 참 좋은 것을, 참 좋은 것을 왜 日本에도 우리 술한 동포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도 貴側의 立場을 봐야 됩니다. 貴側도 우리 立場을 理解해야 되

고, 貴側에도 自體 立場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 좋은 것을 日本에서나마 그만두자, 日本에서도 하지 말자 하시는데 사실은 遺憾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貴側도 그런 事情이 있다고 하니까 同意합니다.

南(朴聖仁) : 아주 그냥 그렇게 하여튼 양쪽에 未洽한 點이 있습니다. 솔직한 表現으로 未洽한 점이 있지만 그렇게 同意를 하시고 하니까 일단 結團, 解團式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말씀 하나만 더 드릴 것은 現地에서 아까 말씀하신 살붙이들이 있습니다. 저희 同胞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쪽에서 어떤 歡迎行事라든가 이런 것으로서 代替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 問題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合意하고 理解합니다.

北(장 응) : 서로 이해합니다.

南(朴聖仁) : 그렇게 합시다.

北(장 응) : 됐습니다. 이 問題 가지고, 이제는 處理가 됐습니다.

南(朴聖仁) : 그러면 2項에 出發, 歸還도 저희가 受容을 했으니까 됐고.

北(장 응) : 세번째, 좀 말씀하겠습니다.

選手團 團服 및 參加에 필요한 團旗問題인데 選手團 團服 圖案을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대로 딱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의 意見이다.

그림이 卓球選手들인데 키가 굉장히 커졌어요. 우리가 選擇한 색깔이 대체로 이런 색입니다.(選手團 團服 圖案 提示)

이것은 21次 아시아競技때 북과 남이…….

南(朴聖仁) : 보기가 그림 아주 좋습니다. 美男 美女에다가…….

北(장 응) : 아, 우리 卓球選手들 잘 생겼지요.(웃음) 겹섰으로 하자는가,

외설으로 하자는가 그것은 귀측의 의견…….

싱글인가 따블인가, Lapping되는가, Lapping 안되는가.

南(朴聖仁) : 우리가 워낙 이런 데 뒤져 가지고…….

南(朴秀蒼) : 따블이 낫지요.

北(장 응) : 따블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은 貴側에서 意見을 提起하신 것인데……. 이것도 우리 두 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討論을 해서 落着을 지읍시다.

南(朴聖仁) : 다 하면 좋겠구만, 아주 흡족하게 잘 되셨는데 이것은 원래 貴側에서 提案했던 연회색 下衣에다가 진곤색 上衣로구만요. 그리고 와이셔스라든지 타이라든지 신발도 다 이런 색으로 하고…….

北(장 응) : 그러나 신발의 形式 같은 것은 바꿀 수 있겠다. 이것을 協議에 붙였는데 정말 衆口難防으로 여러가지 意見들이 있어서 완전히 이대로만 딱 하겠는가 하는 것은 그 쪽에서 의견을 주시고, 하면 그저…….

南(朴聖仁) : 그래서 저도 한번 意見을 들어봤죠, 색깔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은 運動服을 主軸으로 해서 흰색을 하나 하면 좋겠다. 또 우리 團旗같이 하늘색하면 좋겠다. 좋아하는 색깔 말씀드렸는데 그 運動服 일 때는 모르는데 團服을 할 때는 흰 바지색깔에 하늘색 上衣를 하면 모양은 좋은데 조금 약한 맛이 있지 않느냐 그런 助言을 합니다.

北(장 응) : 가벼운 맛이 있다…….

南(朴聖仁) : 그래서 이 연회색에 진곤색은 색깔만 제 색깔이 나오면 團服으로서 아주 짜임새가 있다. 그렇게 저희가 意見을 들었기 때문에 뭐 제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團服에 대해서는 저희 提案보다도 북쪽에서

애초에 계획하신 연회색 下衣에다가 진곤색 하면 오히려 여러가지, 아시아 11次 競技大會때 경험하신 바가 있고.

北(장 응) : 쌍방이 같은 옷을 입고 나갔으니까.

南(朴聖仁) : 저는 오히려 그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北(장 응) : 됐습니다.

南(朴秀蒼) : 따블로요 ?

北(장 응) : 예. 따블로.

南(朴聖仁) : 아주 너무 그림을 잘 그리셔 가지고 선수들 보이면 좀 열등감을 느끼겠는데요 ?

北(장 응) : 아, 우리 卓球選手들 그 쪽이나 우리 쪽이나 다…….

南(朴秀蒼) : 스커트는 미니스커트로 해야지.

南(朴聖仁) : 그것은 나중에 參照를 해주시지, 지금 그것 準備하신 것 잘 봤고, 決定이 됐습니다. 團服은.

北(장 응) : 아래 내용은 그저…….

南(朴聖仁) : 그 運動服關係는 저희가 잠깐 디자인만, 運動服은 이 團服하고 달라서 여러 벌이 있어야 됩니다.(선수단 트레이닝服 및 競技服 圖案 提示)

첫째, 트레이닝은 최소한 3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경기복은 한 8벌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가지로 그려봤는데 이 運動服은 이것이 흰색입니다.

흰바탕 색깔에 이것이 지금 團旗 밑에 『코리아』가 들어가야 되는데, 축구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축구하고 같은데서 하면 됩니다. 蹴球 競技服하는 데 하고, 그래서 이것은 하늘색, 그 다음에 하늘색에 조화보다는 이것

하늘색에다가 調和를 했고, 이중에서 이 다섯가지 중에서 한 세개는 해야 되겠다.

3번은 4번이나, 5번이나 그 중에서 하나 진한 것을 택하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1, 2, 4번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北(장 응) : 1, 2, 4번으로 합시다.

南(朴聖仁) : 1, 2, 4번 색깔에 디자인을 넣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北(장 응) : 1, 2, 4번

南(朴聖仁) : 1, 2, 4번입니다. 記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니폼도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흰색, 하늘색, 이것은 다섯가지인데 이 다섯가지보다 더 좋은 색을 하든지 이것은 다 해야 됩니다. 다 하고도 이것을 또 만들기 어려우면 예를 들면 두벌씩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北(장 응) : 유니폼은 그쪽 裁量에 맡기는 것이 좋겠는데? 이 쥐색은 좋고.

南(朴聖仁) : 이것을 하나 집어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北(장 응) : 왜냐하면 다섯가지고 하고 더 해야 한다지요?

南(朴聖仁) : 제가 볼 때는 운동선수들한테 8벌은…….

北(장 응) : 나머지 세 색깔은 약간 더운색을 택하지 않겠는가?

南(朴聖仁) : 좀 진한 색깔 말씀이신지.

北(장 응) : 더운색, 이거 전부 찬색 계통인데.

南(朴聖仁) : 자주색이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8개를 다 달리하는 것보다는 한 4개를 선택해서 2벌씩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北(김희진) : 2, 4번은 너무 조잡한 감이…….

南(金昌濟) : 그림을 저렇게 그려서 그렇지 실제 입으면…….

南(朴聖仁) : 그러면 여기에 다가, 그것은 저희한테 맡겨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다가 張委員長님 말씀대로 더운색도 配合을 해서 그렇게 다 8가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4가지로 選擇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든지.

北(김희진) : 4가지 선택해서.

南(朴聖仁) : 해서 2벌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됐고, 나項 이것도 問題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다項도 問題가 안 되는 것이고요.

큰 4의 大會期間中 열리는 各種會議에 參加도 合意가 된 事項입니다.

北(장 응) : 예, 그대로 다 됐습니다.

南(朴聖仁) : 그 다음 요 큰 5의 가項도 合意가 된 事項입니다.

北(장 응) : 合意됐습니다.

南(朴聖仁) : 그래서 여기서 합의전에 지금 저희가 出發들을 各自하게 됩니다.

그래서 北側에서 가실 때는 團長이 同行을 하시니까 團旗를 가지고 내리실텐데 南側에서는 團旗없이 내려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두개를 만들어서 일단은 거기 가서는 團長 指揮下에 하나로 하더라도 내릴 때 團旗없이 내리는 것은 모양새가 이상하다.

北(장 응) :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서 연락관접촉을 통해서 넘겨서 그렇게 하도록…….

南(朴聖仁) : 그럼 그것은 그렇게, 이것은 修正合意가 됩니다.

北(장 응) : 그것은 그대로 두어 둡시다. 그렇게 하고 그것은 하는 거지.

南(朴聖仁) : 그렇게 할까요?

北(장 응) : 그럼. 깃발까지 하나를 만들어서 北에서 南에 넘긴다.

南(朴聖仁) : 그래요. 좋습니다. 審判 事項은 貴側에서 提案하신대로고요. 또 말씀 있으시면.....

北(장 응) : 이 저, 團歌問題인데? 朴秀蒼先生, 처음부터 우리하고 參加하시니까 잘 아시는데 우리가 합의한 「아리랑」이 1920年代 부르던, 하던 아리랑입니다. 우리 團歌가. 그러니까 그 團歌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參考로 우리 그대로 錄音한 것인데 이것하고, 이것이 바로 11次 流產된, 불미스럽게 流產된, 朴秀蒼先生이 잘못해서 流產된, 附則바람에 流產된, 그 처음에 우리가 이거 들으면서 정말 눈물이 글썽했던 그 노래 그대로입니다.(北側 녹음테이프 및 악보 傳達)

南(朴聖仁) : 그 差異가 있습니까?

北(장 응) : 가서 한 번, 樂譜上으로 한 번.

南(朴聖仁) :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저희가 받고, 樂譜도 받고 參酌을 해서 하고, 일단 오늘 저희가 준비했으니 저희 것도 한번 參考하시도록 저희가 넘겨드리겠습니다.(우리측 녹음테이프 및 악보 전달)

저희는 가지 수가 많네요. 그래서 준비하신 쪽에서 이 두 테이프는 이 樂譜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쪽 樂譜에 있으니까 이것도 일단 參考를 해주시고.

北(장 응) : 이것만 따로 들으면 되지. 이것만 따로.

南(朴聖仁) : 貴側에서 넘겨주신 이 테이프하고 이 樂譜도 저희가 參酌을 하겠습니다.

南(朴秀蒼) : 우리 저렇게 세가지로 한 것은 하나 예를 든다면 「行進曲」으



로 편곡을 한 그런 것이 있어요, 빠른 템포로. 들어보시고 만약에 도저히 이것가지고는 안되겠다든지 그러면 連絡을 합시다.

北(장 응) : 그런데 큰 問題는 없는데 우리가 필경 우리 選手團의 기본 노래가 있어야 되니까, 일등도 하고 하면 그것은 철저히 「1920年代 아리랑」으로 合意가 됐으니까 그거 하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 參考로 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깃발 問題입니다.

우리가 만들지만, 서로 尊重하는 意味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깃발 規格입니다.

여기에 있는게 3:2입니다. 3:2고, 地圖가, 우리나라 地圖가 하늘색 지도가 앉는 位置는 이 位置다. 이렇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한 번 만들었는데 보십시오. 보시고 地圖가 앉는 位置와 關係해서 複寫해서 가져왔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北側 地圖模型 提示)

南(朴聖仁) : 저희가 보기에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南(朴秀蒼) : 단기가 세워지는 경우도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

北(장 응) :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南(朴聖仁) :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北(장 응) :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地圖가 이렇게 옮겨져요.

南(朴聖仁) : 이렇게 올라서는 거죠? 지도 모양이 올라서는 거지. 이것은 그렇게 되고.

北(장 응) : 깃발을 이렇게 달았을 때는 일없다 이거지? 일없는데. 이렇게 되면…….

南(朴聖仁) : 다시 옆으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의견이 없습니다.

北(장 응) : 이것은 아무래도 組織委員會側과 좀 우리가 說明을 잘 해서.

南(朴聖仁) : 그 대신에 저희가 두가지를 다 準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리냐 하면 우리가 옆으로 들 수가 있고, 그렇게 하여 주시면 별 차질이 없을 것 같은데.

北(장 응) : 그렇게 準備하겠습니다.

南(金昌濟) : 깃발 만드는 사이즈는, 이것을 本部에다가…….

北(장 응) : 우리가 보내겠습니다. 우리가.

南(朴聖仁) : 그것은 연락받고, 그렇게 하면 지금 團旗問題까지 잘 됐고. 테이프는 저희 것 넘겨 드렸고. 그래서 일단 基本合意書에 대한 討論은 끝났지만 그 準備事項을 제가 한번씩 좀 짚어보고 未洽한 것이 있으면 장委員長님께서 짚어주세요.

北(장 응) : 말씀하세요.

南(朴聖仁) : 그 다음에 體寸表를 저희가 準備를 했는데, 저희 運動服이, 시간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 運動服을 어떻게 재야되는지, 그 名單 插入하는 것하고 여기 뒤에 說明書를, 재는 방법을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오늘 넘겨드리겠습니다. 넘겨드리면 그 다음 나중에 나오지만 連絡官會議에, 이것이 늦어도 3월 5일까지는 서로 받아야 저희가 25일날 떠난다고. 그러면 19일쯤은 實物交換이 돼야 될 것으로 判斷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欄이 20명씩돼서 하나면 60명을 할 수 있는데 餘分있게 서너부 넘겨드리겠습니다. 보시고 혹시 잘 모르실게 있다든

지 하면 이것을 더 드려도 되겠네. 그래서 그 다음에 혹시 團體服을 하시는데도 그런, 언제 그렇게 저희한테…….

北(장 응) : 連絡을 하겠습니다.

南(朴聖仁) : 그래서 그 다음에 저 選手名單은 이제 確定이 됐는데 이것도 저희 생각은 總監督하고, 코칭스텝하고 사실 오늘 저희가 가지고 나왔고요. 기타 임원까지도 3月 5日경에는 서로 交換을 해가지고 거기서 서로 署名을 하고 그 다음에 9日이든 11日날 署名한 것을 交換해서 12日쯤에는 發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全體 名單은 3月 5日날 交換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提案을 합니다.

北(장 응) : 3月 5日까지 全體名單을 交換합시다.

南(朴聖仁) : 예.

北(장 응) : 예, 좋습니다.

南(朴聖仁) : 그 다음에 그 名單에는 저희가 準備를 해봤습니다마는 兩側에서 다 職位하고 우리 이름하고 아마 英文이 記載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北(장 응) : 예.

南(朴聖仁) : 그래서 그걸 저희가 準備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같이 準備를 해주시고, 거기다가 生年月日까지는 記載하게 되어 있드만요, 더 자세한 내용은 靚찮으시다면 저희쪽에서는 漢字까지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提案을 합니다.

漢字하고 寫眞, 選手團 寫眞을, 兩側이 다 旅券寫眞은 크기가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5日날 名單을 交換할 때 이 名單하고 各 旅券寫眞 各 5枚씩을 交換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提案을 합니다.

北(장 응) : 旅券寫眞 5枚가 왜 필요합니까?

南(朴聖仁) : 저희쪽에서는 혹시 成績이 나고 紹介해야 할때, 또 弘報를 해야 될 때 이럴 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朴道天理事가 弘報를 맡게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필요하다 하는 提案이 있어서 一但 提案을 해봅니다.

北(김희진) : 위원장님, 對外에도, 海外에도 組織委員會에서 필요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南(朴聖仁) : 그것으로 딴 經路에는 쓸 일도 없을 것 같고 우리 選手團을 위해서 쓸 때 그럴 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어떻게……. 그러면 지금 제가 提案한 選手團 名單에 漢字 表記하고, 그 다음에 寫眞을 旅券寫眞 5장씩 添附하면 좋겠다 하는 提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意見이 있으십니까?

北(장 응) : 寫眞은 現在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出版物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쪽에서. 한장씩 붙입니다.

南(朴聖仁) : 한장씩? 그냥 하나 붙여서 하는 것으로?

北(장 응) : 한장씩 붙여서 하는 걸로.

南(朴秀蒼) : 出版物때문은 아닌데……. 言論社 弘報問題 그런 것 때문에 必要하지 出版物은 關係없어요.

우리가 別途로 名單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南(朴聖仁) : 出版物 問題는 現地에 가서 合意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全體 單一팀의…….

北(장 응) : 出版物 問題는 全體 單一팀이 日本에 가면 거기서 團體生活이

되니깐 뭐…….

南(朴聖仁) : 거기서 하면 될 것 같고…….

南(朴秀蒼) : 그 問題는 생각해 봤어요. 이것이 歷史的인 意味가 있는 그런 單一팀 實現이기 때문에 전체 앨범에다가 記錄用으로서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도 現地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北(장 응) : 寫眞 5枚씩이요?

南(朴聖仁) : 예.

北(장 응) : 합시다.

南(朴聖仁) :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既存 確保된 엔트리에 대한 公文은 요전에 장위원장님께서 「South and North」를 빼고 「both table-tennis association」으로 고쳐 하자 말씀하셨는데 저희측에서는 그것을 고쳤습니다. 그것도 아까 支援問題에 대한 諸般要請事項과 마찬가지로 確認이 되면 나중에 같이 署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北(장 응) : 國際卓球聯盟 委員長한테 보내는?

南(朴聖仁) : 그렇죠.

北(장 응) : 그것을 우리도 만들어 왔는데, 英文도 가져왔습니다.

南(朴聖仁) : 그 文案作成하면서 다 整理를 해서 그 때 쯤 作成합니다.

北(장 응) : 그렇게 합시다.

南(朴聖仁) :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이것 하나 提案할 것은 文案整理가,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 實務委員을 蹴球의 例를 보니까 양

측에서 두명씩 委任을 했드만요.

그래서 그것도 미리 文案調整을 위해서 實務委員을 지금 여기서 協議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北(장 응) : 합시다.

南(朴聖仁) : 저희 南側에서는 朴秀蒼委員하고 우리 朴道天委員을 委任된 任員으로서 그렇게 했으면…….

北(장 응) : 그러면 우리는 마주 앉은 분들끼리 그렇게 합시다. 反對없습니까?

南(朴聖仁) : 박도천委員하고.

北(장 응) : 우리는 여기에…….

南(朴聖仁) : 그렇게 이 合意文이 끝나면 文案調整을 하시도록 그렇게 委任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계속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北(장 응) : 말씀하십시오.

南(朴聖仁) : 저희가 인제 訓練場을 요청했어요. 저쪽에서 서너군데 準備가 된 것 같은데 사실 이 訓練場 問題가 상당히 重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3月 언제부터 하기로 準備가 됐다. 이러면 事前에 저희가 한번, 저희가 選手本團이 到着하기 전에 技術者들이 가서 宿所라든가 訓練場이 能率있게 訓練할 수 있는 場所냐 하는 것이 踏查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만일 안 돼서 가 가지고 右往左往하면 損害를 많이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提案을 합니다.

이것은 競技技術者들이 가서 우리 짧은기간 동안에 能率있게 訓練에 支障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을 踏查하자 그런 提案을 합니다.

北(장 응) : 새로운 것인데…….

南(朴聖仁) : 글썽 이걸 새로운 겁니다. 다시 저희가 못 만나 뵈는 것 같아서  
오늘 그 關係되는 것은 한번 여기서 다 提案을 해야 되겠다…….

北(장 응) : 이 문제는 討論해서, 우리 同胞들도 가득 있으니까 卓球關係者  
들도 있고 그러니까 討論을 해서 그 쪽에서는 꼭 누구 朴先生이라든가 專  
務理事先生 가신다든가 하는 것은 그 쪽 裁量으로 맡기겠습니다.

南(朴聖仁) :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협의해서 本會談에 뭐 넣질 말고  
……. 알겠습니다.

北(장 응) :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南(朴聖仁) : 同意합니다. 그 다음에 그…….

南(朴秀蒼) : 거기서 만약에, 그럴리아 없겠지만 大會組織委員會에서 提供해  
주는 訓練場所가 우리는 마음에 드는데 北側에서는 마음에 안든다든가 또  
는 그 反對 現象이 일어난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되나?

北(장 응) : 가기전부터 朴先生 그런 소리하십니까? 다 맞게 돼요. 훈련장이  
라는 것이 높이 保障되고, 그 다음 탁구대가 보장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記  
者분들 계시지만 記者들 자꾸 출입 못하게 잘 해놓으면 되는 것이고, 기자  
분들이 또 와 있으니 여기 外人出入 안하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南(朴秀蒼) : 기왕에 갈 바에는 그게 같이…….

南(朴聖仁) : 아니, 그것은 協議해서 만일 貴側에서 올 수도 있고 그 同胞들  
을 委任할 수도 있고 그것은 技術者들은, 어디서 와도 마찬가지야, 그러니  
까 그것은 장委員長님 말씀대로 協議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北(장 응) : 그러면 거기에 條件은 뭔가 卓球판이, 卓球臺가 충분한 수량이

確保돼야 된다.

南(朴聖仁) : 그런 것 하고, 진짜 운동할 수 있는, 하여튼 能率的인 運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技術者들이 보면 똑 같은거고. 그렇게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北(장 응) :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런 場所를 찾는 중입니다. 組織委員會 하고 結束을 해서, 組織委員會와 結束해서 찾는 중입니다.

또 一定한 連絡도 왔어요. 連絡도 왔는데 確定되면 우리도 그 쪽에 알려주도록 하고 訓練場所問題는 큰 意味가 없습니다.

南(朴聖仁) : 그것은 그렇게 넘어 가십시오.

그 다음에 本會談에서 委任을 맡은 實務委員會 오늘로서 合意하면 일단 合意하는데까지 임무는 끝나고, 그 다음에 本會談에 보니까 任務가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고 本大會가 終了할 때까지 이것이 存續하게 되어 있더 만요. 그래서 그 問題는 이것이 지금 45日에서 50日間이 所要되는 期間이 예요.

물론 貴側에도 事情이 있겠지만 저희側에도 그런 問題點이 있어서 제가 한 두가지로 意見을 내는 것은 첫째 본 實務委員들도, 實務委員이 選手團 本團에 兼任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貴側에서도 그런 例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런 計劃이 있습니다.

그래서 本團에 委任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또 隨時로 本會談 規定에 實務委員을 交替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사람을 交替하는 方法, 그 다음에 實務委員이 처음부터 지난번 貴側에서 말씀하신대로, 처음부터 同行하는 것이 同行 안하면 안되는지 한번만 더 確認을 하고. 그런 두가지입니다.



그러니까 同行을 처음부터 할 것이냐 하는 問題하고 選手本團이 兼任이 됐을 때는 實務委員會를 交替할 수 있는 問題 그 두가지 提案을 합니다.

北(장 응)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研究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일단 選手團이 構成이 되면, 構成이 되면 選手團에 提起되는 問題를 討論해서, 協議를 해서 解決을 하자 그것이 原則이죠. 그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南(朴聖仁) : 同意합니다.

北(장 응) : 예, 그렇게 하면 좋겠다. 實務委員會는 만일 이제 우리가 큰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고 뭐 이제 기타 문제들 또 처리할 것이 있겠다 하는 경우에는 實務委員會가 필요한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現地에 가서 提起된다는 것이, 그저 選手들 먹고 재우고 訓練 잘 시키고 경기 성적올리는 것인데, 거기에서 우리 實務委員들 딱 참가를 해서 개입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代表團, 選手團에 맡기자.

南(朴聖仁) : 예, 그 취지는 同意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實務委員會 合意事項에, 공식적인 合意事項에 지금 選手團에서 거의 다 解決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사람일이라는 것이 혹시 만에 하나라도 이외의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여기 文案이 아마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데 이 文案을 보면 그 이외 문제발생시에는 事案別로 實務委員會에서 協議하여 處理한다 하는 그 규정이 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實務委員會가 우리 마음대로 本會談에서 委任받은 것이 그냥 다하면 되지 않겠냐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存續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裝置는 必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北(장 응) : 그래서 뭣이 조금 提起된다 하더라도 日本에 가서 實務委員會 한다는 것도 조금 우스운 노릇이고 해서 그렇게 맡겨놓고 그저 實務委員會는 이것으로서 우리가 오늘 合意를 다했으니까 基本的으로 자기 任務를 다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도 實務委員會가 할 일이라는 것이 크게 있을 것 같지 않아요. 實務委員會 事案別로 處理한다는 것, 우리는 件別로 處理한다는 것은 出發直前까지 選手가 交替되는 일이 생긴다거나 이런 일이 혹시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案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南(朴聖仁) : 그렇지는 않고요.

北(장 응) : 實務委員會가 가서 實務委員會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南(朴聖仁) : 그래서 그것은 저는 그 취지는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本會談에서 이렇게 지금 저희 實務委員會에 委任된 事項이지 實務委員會에서 만든 事項은 아닙니다. 이것이.

그런데 저희가 本會談에서 한 것을 實務委員會에서 임의대로 任務遂行을 여기서 끝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하나 있고, 출발전에 어떤 문제는 괜찮지만 한달동안 있으면서,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짧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50명, 60명 되는 식구가 한달동안 있다 보면 우리 競技外的인 問題도 나는 서로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럴 때는 어떻게 감독이나 단장은 선수단을 총괄하지만은 이런 측면에

서 탄생시켜준 이런 委員會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대신에 수를 줄여가지고, 줄여가지고라도 나는 本會談의 취지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北(장 응) : 顧問이 네분씩 가는데, 顧問이 네분씩 가는데 選手團에 맡깁시다. 다 됩니다. 근심하실게 없습니다.

그래서 實務委員會를 縮小해서 우리가 實務委員會 성원으로서는 하나의 選手團으로 가는데 그 안에 實務委員會가 또 있다 하는 것도 남보기도 우스운 것이고 해서 選手團에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南(朴聖仁) : 취지는 공감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本會談하고 관계없습니까? 우리가 本會談에 委任된 事項인데.

北(장 응) : 이런 문제 제기되면 앞으로 本會談에서 朴先生 잘못했으면 朴先生을 내가 좀 얘기를 할 것이고, 내가 잘못했으면 朴先生이 나한테 얘기를 할 것이고 이제 끝나는 것은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南(朴聖仁) : 물론 지금 人員數는 많은데, 人員數는 많은데.

北(장 응) : 괜찮습니다. 마음 폭 놓으십시오.

南(朴秀蒼) : 그러면 이 規程은 필요가 없는거예요.

北(장 응) : 아니, 그것은 뒤두고, 뒤두고 實務委員會를 거기서 또 한다고 本會談에 해놓은 것이니까 뒤두고. 가서 문제가 될게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저 걱정하지 마십시오. 朴先生님 가시는 것 같은데 꼭 가시겠지.

南(朴聖仁) : 저희는, 計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시다마는.

北(장 응) : 이제 뻘한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서기장 동지는 가겠는데, 가서 오손도손 하십시오.

南(朴聖仁) : 아니, 장선생님도 오셔야 될것 아닙니까?

北(장 응) : 나야 卓球專門家는 아니니까.

南(朴聖仁) : 專門家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장선생님 오시게 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實務委員會 넣어야 되겠는데.(짱방 웃음)

北(장 응) : 그렇게 합시다. 그것은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南(朴聖仁) : 합의서 요거는, 이것은 저희가 위임, 위원장이지만 實務委員會 사항은 제가 결정할 권한을 이미 맡았는데, 지금 장선생님이 本會談에 참석을 하셨으니까 그 취지를 아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볼때는 제 權限밖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北(장 응) : 그러니까 朴先生, 實務委員會 委員長으로서 이제 아무래도 꼭 가시겠으니까, 가시면 그쪽에서는 實務委員會를 하시고 또 우리 또, 우리 가니까.

南(朴聖仁) : 아니, 張委員長이 안간다면 난 꼭 넣어야 되겠어, 이거 난 反對입니다. 우리 넣읍시다.

北(장 응) : 그래서?

南(朴聖仁) : 아니, 數를 줄여서라도, 數를 5명하지 말고 2명이나 3명으로 하자, 이것이죠. 2명이나 3명으로.

北(장 응) : 인원에 또 걸린다는 말이 나온다고.

南(朴聖仁) : 그렇지, 인원은 조금 불어나지. 그대신 내부적으로는 이게 實務委員會는 本團하고 다른 셈입니다.

北(장 응) : 이거 朴秀蒼 先生이 그러는 것 아니에요?(쌍방 웃음) 아니, 자기 꼭 가야돼서 그러는 것 같아요.

南(朴聖仁) : 근데 나는 생각도 안하고 했는데 지금 장선생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나는 장선생님 여러번 말씀을 들었지만 제가 뵈니까 장선생님이 오히려 계시는 것이, 오히려 난 모든 것이 좋겠다. 數字를 줄입니다.

北(장 응) : 숫자를 줄여서 그쪽에서도 한서명.

南(朴聖仁) : 3명으로 합시다, 3명.

北(장 응) : 3명하고 우리도 3명.

南(朴聖仁) : 해서 이것은 内部的으로 本團하고는 관계, 本團에서 해결못하는 것을 해결하는게 實務委員會거든요.

하지만 가끔 ID카드라든지 제반 便宜를 받기 위해서는 選手團에 包含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장선생님 말씀도 참작을 해서 5명을 3명으로 줄이십시다. 그래서 存續하는 걸로.

北(장 응) : 그러면 合意書 또 고쳐야 되겠구만.

南(朴聖仁) : 이것은 文案作成할 때 小委員會로 해도 좋고 3명으로 위임해도 좋고.

南(朴秀蒼) : 實務委員會 해놓고 3명 각각 이렇게.

南(朴聖仁) : 그래야지 이것을 없애지 맙시다. 그리고 3명안에는 장위원장님이 꼭 오셔야 된다는 것을 꼭 文案作成할 때…….(쌍방 웃음)

그다음에 그것은 그렇게 同意를 해주시죠?

北(장 응) : 討論을 좀해야 되겠구만 단 56명이 된다는 소린데.

南(朴聖仁) :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많이하는 것을 무조건 다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줄이자니까 내가 조금 混沌은 오는데, 이것은 必要하다고 判斷하니까 56명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北(장 응) : 먼저번에 박선생이 이것 배꼽이 더 큰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딱 그렇게 제한을 해서 토론을 했는데.

南(朴聖仁) : 내부적으로는 本團하고 分離해야 된다고, 그런데 저쪽에서 便宜를 볼려면 일단 數字를 늘려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理解를 하십시다.

南(朴秀蒼) : 우리 위원장님을 반드시 參加시킬려며는, 반드시 늘려야 돼.

南(朴聖仁) : 그것은 나중에 기회있으면 얘기하도록 하고 56명으로 일단 通報하는 것은 그렇게…….

北(장 응) :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나혼자 여기서 결심할 수도 있는데 3명하는 것, 우리 討論해서.

南(朴聖仁) : 끝나기 전에 오후에 말씀을 하시죠.

北(장 응) : 오후에 올때 討論해서.

南(朴聖仁) : 좋습니다. 그렇게 討論하십시다.

北(장 응) : 그렇게 討論합시다.

南(朴聖仁) : 그다음 하여튼 3명이 되든 5명이 되든 일단 經驗이 많은 사람들은 實務委員會로 될 수 있는대로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업무가 분리되게, 그렇게 참작을 해서 의논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회담이 끝나며는 連絡官 會議 日程이 잡혀

야 되는데 그때 連絡官 會議할 때 連絡官하고 實務者 1인씩을 포함시키  
자고 저희가 提案을 했는데 그것은 意見이 없으신지?

北(장 응) : 그 連絡官 會議日程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오늘 여  
기서 그것 討論하지 말고 電話가 있으니, 적십자에서 하는 電話가 있으  
니까 電話를 통해서 수시로 連絡할 것이 있으면 連絡하고 이렇게 하고.

南(朴聖仁) : 차질이 없을까요? 왜 그러냐하면 긴급한 사항이 있거든 그것  
만은 하자 이거지.

南(朴秀蒼) : 처음에 해야될 일은 지금 있으니깐 첫 接觸日字는 잡고.

南(朴聖仁) : 첫날만 잡고.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우선 체춘표 交換해야 되고.

北(장 응) : 3월 5일, 그것 反對없습니다.

南(朴聖仁) : 그다음에 기타 任員名單.

北(장 응) : 3월 5일로 정합시다.

南(朴聖仁) : 그것은 文案할 때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雙方 申請書 署名·交換, 그다음에 아까 했던 寫眞이라든지  
그런 것이 5일날 交換되고 그다음 일정도 잡았습시다마는, 그다음 日程은  
電話通知로서 서로 連絡을 하기로 하면 좋겠다.

北(장 응) : 3월 5일날 합시다.

南(朴聖仁) : 예, 3월 5일.

北(장 응) : 3월 5일에 그렇게 합시다. 雙方이 명기할 것이 뭐냐하면 옷치  
수라든가 人員名單, 寫眞 그리고 그것없죠?

南(朴聖仁) : 그렇죠. 그러다가 生年月日이라든가 자세하게.

北(장 응) : 그런 것을 자세하게 쓰고.

南(朴聖仁) : 그다음에 제가 2가지만 더 남았는데요. 지금 통상 저희가 北側에서도 그렇고 南側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나갈때, 판매는 안해가지만 團體競技에는 패난트 交換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선수들끼리는 뗏지 교환을 했는데, 우리는 보통오픈대회는 안해 왔습니다.

世界大會만은 꼭 해왔는데 이것도 우리가 單一팀할 때 상당히 相對國에서 아주 바라지 않겠느냐 그래서 패난트, 뗏지를, 패난트나 뗏지는 같이 製作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제안은 둘중에 北側에서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 하시면 우리가 하는데 그내용은 우리가 단기 製作된대로 벗어나지 않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提案을.

北(장 응) : 그러니까 뗏지는 그저 團旗 地圖만 들어가고.

南(朴聖仁) : 團旗 地圖만 들어가고 패난트도 마찬가지로.

「코리아」들어가는 것이고, 그이상에서 벗어나면 안되는 것이죠.

北(장 응) : 필요하고 우리도 그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어떤 것을 맡아 하시겠습니까?

南(朴聖仁) : 저 욕심같아서는 두개를 다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되고 하나씩 나누어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 저희 생각은 저쪽에서 團旗를 하시니까, 團旗하고 패난트하고 유사점이 있지 않느냐, 저희가 뗏지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은 뭐 저희가 만들기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쪽에서 패난트를 만드시드래도 共同으로 使用하는 것이니까 수량만, 원래 패난트 數量보다 뗏지수량이 오히려 많아집니다.



선수숫자가 많기 때문예요. 그래서 그것은 양쪽이 쓸 수 있게 충분한 數量을 준비해서 共同使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提案을 합니다.

北(장 응) : 그저 또 뭐 同意해야지, 뭐, 朴先生, 그쪽에서 뺏지만들고 우리 페난트를 만듭시다.

南(朴聖仁) : 예, 그렇게 하십시다. 충분한 수량을 가지고 와서 共同使用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다음에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요것도 제가 提案을 해야되나 안해야 되나, 조금 습관성인데 우리가 단일팀으로 가고 또 아까 중요한 상충되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 현지에서 우리동포들이 우리같이 이렇게 單一된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물론 우리 所管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單一팀을 指導한 사람으로서, 간절한 소망으로서 양측에 建議를 해가지고, 예를들면 應援이라든지 어떤 歡迎行事 같은 것을 共同으로 하는 길이 없겠느냐 그런 것을 제가 생각을 해서 提案을 합니다.

北(장 응) : 아마 우리측은 벌써 다 끝났을 수 있습니다.

南(朴聖仁) : 그렇습니까?

北(장 응) : 그 다했습니다.

南(朴聖仁) : 그래서 다 잘 아시겠지만,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 가서 가 능하면.

北(장 응) : 11차 아시아경기대회때도 다 共同應援하고 그랬는데 이거야 민족의 경사인데 그것은 근심하지 마시고.

南(朴聖仁) : 그러면 이거는 뭐 우리가 합의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서로

그런 意思를…….

北(장 응) : 그럼, 그저 뒤 두십시오. 다합니다.

南(朴聖仁)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간이 벌써 12시가 됐는데 일단 合意事項 말고 부수적인 問題를 제가 일단 제안도 하고 合意를 했습니다.

또 혹시 귀측에서 미흡한 점, 새로운 提案이 있으시면 끝나기전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北(장 응) : 다시 한번 朴先生, 이제까지 수고를 하셨는데 한번 명백히 할 것이 있습니다. 選手團 名單이 다 확정이 됐습니다. 選手團의 名單이 확정이 됐고, 構成問題는 選手團 構成을 완성해야 되니까 박선생 의견은 수행에서 좀 늘리지 말자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니까 이제는 3명 늘리자 그러는데 그것은 늘리는 것으로 합시다.

南(朴聖仁) :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北(장 응) : 그러니까 選手團 構成案이 완전히 確定이 됐습니다.

南(朴聖仁) : 確定됐습니다.

北(장 응) : 다음으로 參加申請書 問題, 訓練期日 問題 우리 동의를 합니다.

출발날짜 3월 25일로, 도착날짜 3월 25일로 다시 調整을 했습니다.

南(朴聖仁) : 그래서 말씀드리면 시간은 가능하면 비슷한 시간대에 서로 연락하기로.

北(장 응) : 參加申請書 문제 이것은 3월 15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또 넣자니까 그대로 넣읍시다.

結團式, 解團式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낙착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회의 성격문제라는 것이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고 원래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고, 3월 5일에 첫 連絡官 會議를, 連絡官 接觸을 가지도록 했고. 여기에서 옷 치수들을 쌍방에 넘겨주며 완성된 선수명단 여기에는 영문, 한자까지 포함해서 生年月日 이것까지 다 포함시킨다는 것. 이것 기재된 名單을 넣는다는 것. 사진 5매를 첨부해서 넘긴다. 이것이 確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12일까지는 發送을 해야 되겠다는 것 낙착이 되었습니다. 그외에 다른 問題는 더 없는 것 같습니다.

南(朴聖仁) : 그래서 저희가 그제…….

北(장 응) : 그리고 뗀지하고 패난트문제가 낙착이 됐고, 깃발을 하나 우리가 만들어서 貴側에 出發前에 넘기는 問題가 제기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쪽에서 할일이고.

그다음 이제 한가지 團歌 問題가 1920년대 아리랑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참고로 두개 들어온 것은 우리가 참작해 보겠다는 것으로 낙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계획했던 것이 다 끝났습니다.

南(朴聖仁) : 아주 장선생,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혹시 저쪽에 지금 총감독 이름을 우리가 내긴 냈는데 저쪽에 團長은 아직 發表할 그런 계제는 아니죠?

北(장 응) : 예.

南(朴聖仁) : 좋습니다. 그것은 그때, 3월 5일날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며는 이제 실제 시간은 지났지만 文案作成을 해야되지 않나 싶은데 그 이전에 장위원장님께 제가 그 다 끝났지마는 하나의 감사의 말씀을 드

리고 싶고. 여러가지로 저는 사실 두번밖에는 안했습니다마는 제가 처음 장위원장님 뵙기는 그 우리 「나가사키」인가 88올림픽 豫選할 때 제가 잠깐 뵙것 같고요.

北(장 응) : 예. 그때 왔습니다. 卓球와 저는 인연이 있습니다.

南(朴聖仁) : 중간에 여러번 말씀들었고 또 제가 미흡한 점이 많습시다마는 이렇게 좋은 結果가 나오시도록 해주신데 대해서 感謝를 드리고. 하나 아직도 저로서, 저희 南側으로서…….

이미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現地에 가가지고 單一팀, 각 個別로 나갔을 때 보다는 成績이 더 좋아야 된다는 것이 저희한테 주어진 어떤 至上課題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게 5월 6일날 끝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가기전에 結團式, 解團式을 못했습니다마는 끝난후에 좋은 結果를 가지고 結團式, 解團式이 아니고 양쪽을 오고 가면서 우리 民族앞에 人事할 수 있는 계기는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檢討해 봐 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을, 이젠 뭐 제안이 아니고요. 그런 그 하나의 간절한 興望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일단 어떤 任務는 끝났습시다마는 저로서는 누차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이렇게 참석한데 대해서 저 개인이나 협회나 民族을 위해서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작이고.

제가 또 하나 바라는 것은 장위원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끝난 다음에 「이 卓球의 例를 보아라. 모든 걸 이 卓球의 例를 본 받자」 이

렇게 정말 진심으로 되도록 努力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民族이  
나 어떤 統一에 가는데 첫 발자욱이 아주 명쾌하게 매끄럽게 되도록 저  
자신이 있는 힘을 다하겠고, 저희측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정말 感謝와 아울러 저희 하나의 榮光된 그런 所任에 대  
해서 저의 어떤 意思를 表明을 했습니다. 여러가지로 정말 대단히 고마왔  
습니다.

그러며는 저희 생각은, 요건 끝나며는 이제 곧장 점심하기 전에 文案作  
成으로 들어가며는 어떻겠냐 이렇게 提案을 합니다.

北(장 응) :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民族이 分斷이 된 이래 처음으로 어제 축구가 유일팀이 탄생이  
됐고, 오늘은 第41次 世界卓球選手權大會에 北과 南이 유일팀으로 참가하  
게 되는데 대해서 다 合意했습니다.

남은 과제는 文案整理 밖에 없습니다. 비단 이 유일팀이 오늘 전반적인  
合意를 봤지만 제 생각에는 나이는 29살 정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을 거쳐서 갖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유일팀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過程에는 우리가 서로 얼굴을 붉힌적도 있고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이 다 合意가 되고 보니까 감개무량하고 우리가 그래  
도 우리 겨레앞에 다진 맹세를 遂行했구나 하는 이런 긍지도 없지않습니  
다.

이제 박선생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시작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했습  
니다. 저도 同感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늘 結團式, 解團式 問題가 오늘

도 일정한 論爭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이 第41次 世界卓球選手權大會에 參加하는 이 유일팀 선수단이 물론 사람을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계속 변함없이 그 어느 選手權大會든 유일팀으로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所願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의 所願입니다. 또 거래의 所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축구에서는 蹴球가 첫 빗장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蹴球에 대비할 바가 되지 않습니다. 축구는 청년경기대회입니다. 청년선수권대회입니다.

이것은 本 選手權大會입니다. 41次 世界卓球選手權大會면 本 選手權大會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雙方이 우리가 合意된 사항대로, 合意된 대로 日本에 가서도 철저히 이 合意事項에 의해서 일을 해나가면 다른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文案整理를 그저 2時부터 합시다. 2時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南(朴聖仁) :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文案整理가 끝나면 署名時間도 5時로.

北(장 응) : 5時? 한 4時쯤에 하면 안되겠나?

南(朴聖仁) : 5時가 좋을 것 같아요.

北(장 응) : 5時, 그럼 5時에 합시다. 5時에.

南(朴秀蒼) : 저 날짜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3월 5일날 連絡官 接觸場所의 時間.

北(장 응) : 電話로 하기로 합시다.

南(朴秀蒼) : 電話로? 連絡官 接觸을? 오늘, 오늘 그냥.

北(장 응) : 오늘 우리 연락원들 한테 가서 내가 얘기를 할게요.

南(朴秀蒼) : 예. 그렇게 오늘 하여튼 매듭 지읍시다.

南(朴聖仁) : 수고 많았습니다.

北(장 응) : 수고 많았습니다.

南(朴聖仁) : 그러면 5時에 또 장위원장을 뵙고 매듭을, 하도록 그렇게.

北(김희진) : 朴先生이 이러면 부담스러워져.

南(朴秀蒼) : 그게 얼마나 걸리겠어요. 늦어도 우리가 3時안에 끝내야 돼요.

南(朴聖仁) : 저희는 이제 5時에 오도록 하고.

北(장 응) : 예.

南(朴聖仁) : 잠깐후에, 5時에 만나시죠.

北(장 응) : 예, 예.

< 雙方代表 人事交換後 退場 >

文案調整을 위한 實務代表接觸(14:15~15:05)

- 우리側 實務代表: 朴秀蒼, 朴道天
- 北 側 實務代表: 김상부, 김희진

<雙方 實務代表 入場 및 人事交換>

南(朴秀蒼): 잘 쉬었습니까?

北(김상부): 예, 잘 쉬었습니다.

문안수정 거의 다, 잘될 것 같은데.....

南(朴秀蒼): 그래서 맞췄으니까 빨리 끝냅시다.

北(김상부): 그래서 우리는 그저 우리案을 위주로 하면서도 南側에서 좋은 점들은 살려주고, 그러니까니 내용상 그저 異見이 없으며는 각기 便利한 대로 하되 그저 修正하는 거는 없는 方向에서 합시다.

南(朴秀蒼): 그것은 한번 내용을 보고.

北(김상부): 예, 예. 어떻게 할까요?

南(朴秀蒼): 그러며는 제가 한번 읽을게요.

北(김상부): 예?

南(朴秀蒼):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읽으면서, 한번 쪽 읽고 그리고 나서 細部事項으로 좀 토의를 합시다.

北(김상부): 세부사항?

南(朴秀蒼): 예. 하나 하나.

北(김상부): 한 문제씩?



南(朴秀蒼) : 한번 읽은 다음에, 다음에 逐條審議로 들어가자고. 하나 하나 들어가자고.

#### 第 41 回 世界 卓球選手權大會 單一팀實務委員會 合意書

南北卓球單一팀 實務委員會는 第 41 回 世界卓球選手權大會 南北單一팀 構成·參加에 관한 合意書에 따라 그 實行을 위한 구체적 事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다.

#### 1. 選手選拔 및 訓練에 관한 사항

##### 가. 合意에 의한 選手選拔

(1) 大會에 참가할 선수는 國際卓球聯盟으로 부터 쌍방 卓球協會에 配定된 인원과 聯盟랭킹 規定에 의해 자동적으로 出戰할 수 있는 資格을 獲得한 인원으로서 한다.

(2) 各 種目(단체전, 개인단식, 개인복식, 혼합복식)에 出戰 選手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가) 女子 團體戰에 參加하는 選手(4명)는 남측 2명 북측 2명으로 構成한다.

(나) 男子 團體戰에 參加하는 選手(5명)는 남측 2명 북측 3명으로 한다.

(다) 각 종목에 出戰하는 選手 順位와 名單은 別紙에 添附한다.

##### 나. 選手訓練

(1) 訓練에 參加할 選手의 수는 남과 북이 同數로 하되 男子選手는 남

北 각각 6명 女子選手는 南北 각각 5명, 계 22명으로 한다.

- (2) 훈련에 參加할 임원은 選手團 構成에 포함되는 임원으로 한다.
- (3) 選手訓練은 大會現地에서 실시하며 그 기간은 3월 26일부터 4월 23일까지로 한다.
- (4) 選手 訓練時 수송, 숙식, 의료등 제반 편의사항 및 訓練場所는 단일팀실무위원회 共同委員長 名義로 대회 조직위원회에 협조를 要請한다.
- (5) 선수 훈련과 관련한 行政事項은 쌍방의 總務가 管掌하여 처리한다.

## 2. 選手團 構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가. 選手團 團長 및 任員 選定에 관한 사항

- (1) 選手團 團長은 북측이 맡는다.
- (2) 顧問은 쌍방 각각 2명씩(계 4명)으로 한다.
- (3) 總監督은 남측이 맡는다.
- (4) 監督은 쌍방 각각 1명(계 2명)으로 하며 남측이 女子選手 감독을 북측이 男子選手 감독을 맡는다.
- (5) 코치는 雙方이 男女 코치 2명씩(계 4명)으로 한다.
- (6) 單一팀實務委員會 위원중 쌍방 각각 3명씩을 選手團에 包含 시킨다.

### 나. 行政, 醫療, 支援人員등 선정에 관한 사항

- (1) 쌍방 卓球協會 理事 및 專門家를 각각 1명씩(계 4명)동반한다.
- (2) 總務, 渉外, 公報, 通譯, 醫療등 5개부서를 두고 쌍방 각각 1명씩(계 10명)으로 한다.

- (3) 競技資料 蒐集・分析을 위해 撮影技士를 각각 1명씩(계 2명) 동반한다.

다. 選手團 管理에 관한 사항

- (1) 선수단 관리는 團長이 責任지며 단장 不在時에는 總監督이 團長을 代理한다.
- (2) 顧問은 단장과 총감독의 諮問役을 맡는다.
- (3) 總監督은 선수단의 제반 訓練과 競技를 總括한다.
- (4) 監督은 코치와 協議하여 訓練計劃을 作成하고 경기를 執行하며 코치를 지도한다.
- (5) 코치는 담당 선수들의 訓練 및 競技를 指導한다.
- (6) 卓球協會 理事는 감독 및 코치의 활동을 지원한다.
- (7) 專門家는 감독 및 코치의 자문에 응한다.
- (8) 總務는 選手團의 訓練과 관련한 제반 行政事項을 관장・처리한다.
- (9) 渉外는 국제탁구연맹과 大會組織委員會 및 여타 선수단과의 渉外 業務를 담당한다.
- (10) 公報는 선수단 활동과 관련한 公報業務를 담당한다.
- (11) 通譯은 選手團의 통역업무를 담당한다.
- (12) 醫療는 선수단의 치료 및 健康管理를 담당한다.
- (13) 撮影技士는 제반 競技資料 蒐集・分析을 위한 촬영을 담당한다.

라. 參加 申請書 제출에 관한 사항

- (1) 대회 참가 신청서는 單一팀 實務委員會에서 選手名單이 확정되는

즉시 3통을 작성하며 쌍방 共同委員長이 署名하여 제 41 회 世界卓球選手權大會 組織委員會에 2통, 國際卓球聯盟에 1통씩 각기 발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2) 參加申請書는 늦어도 3월 15일 이전에 발송한다.

마. 參加申請書 提出후 선수단 문제 발생시 解決方案 講究에 관한 사항

(1) 선발된 선수가 負傷, 疾病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대회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該當協會에서 選拔하여 充員한다.

(2) 그 이외의 問題 發生時에는 事案別로 단일팀실무위원회에서 協議하여 處理한다.

바. 선수단의 結團式과 解團式은 하지 않는다.

사. 선수단의 出發, 歸還과 관련한 수송 및 경로등에 관한 사항

(1) 선수단의 出發과 歸還是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2) 選手團의 대회 현지 到着날짜는 3월 25일(월)까지로 한다.

3. 선수단 團服 및 대회 참가에 필요한 裝備에 관한 사항

가. 단복과 운동복을 분리하여 團服은 북측에서 運動服은 남측에서 준비한다.

나. 個人 持參用具(탁구채, 고무등)는 각자 확보하고 共同使用用具(공, 고무풀, 수건등)는 공동으로 구입한다.

다. 단일팀 단복과 운동복 그리고 各種 裝備에는 單一팀 團旗標識 이외에 다른 표지는 할 수 없다. 단, 트레이닝복의 가슴에는 單一팀 團旗標識

밑에 우리말로 『코리아』를, 등에는 영어로 『KOREA』를 새겨 넣는다.

4. 대회 개최기간중 열리는 各種 會議에는 會議 性格에 따라 現地에서 쌍방이 合意하여 필요한 代表를 참가 시킨다.

5. 기타 單一팀 構成및 參加에 따른 제반사항

가. 단일팀의 團旗는 북측에서, 團歌(녹음테이프 및 악보)는 남측에서 준비한다.

나. 제 41 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공식적으로 招請받은 國際審判은 단일팀선수단 구성에 구애받지 않는다.

6. 본 合意書는 서명일로부터 效力을 발생한다.

1991년 2월 27일 관 문 점

大 韓 民 國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卓球協會 會長의 委任에 의하여

卓球協會 委員長의 委任에 의하여

卓球單一팀 實務委員會

卓球唯一팀 實務委員會

南側 共同委員長 朴 聖 仁

北側 共同委員長 장 응

예, 그 별첨을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 41 회 世界卓球選手權大會 卓球單一팀 選手名單

1. 대회조직위원회에 提出할 選手順位 및 名單. 남자부터 제가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남 자	여 자
1. 유 남 규	1. 리 분 희
2. 리 근 상	2. 현 정 화
3. 김 성 희	3. 유 순 복
4. 김 택 수	4. 홍 차 옥
5. 박 지 현	5. 홍 순 화
6. 김 국 철	6. 한 혜 성
7. 강 희 찬	7. 안 희 숙
8. 리 승 일	8. 박 경 애
9. 추 교 성	9. 김 혜 영
10. 김 명 준	10. 박 해 정
11. 이 철 승	
12. 최 경 섭	

단체전 출전선수 명단입니다.

남 자	여 자
1. 유 남 규	1. 리 분 희
2. 리 근 상	2. 현 정 화
3. 김 성 희	3. 유 순 복
4. 김 택 수	4. 홍 차 옥
5. 김 국 철	

개인단식 출전선수 명단입니다.

남 자

1. 유 남 규
2. 리 근 상
3. 김 성 희
4. 김 택 수
5. 박 지 현
6. 김 국 철
7. 강 희 찬
8. 리 승 일
9. 추 교 성
10. 김 명 준
11. 이 철 승

여 자

1. 리 분 희
2. 현 정 화
3. 유 순 복
4. 홍 차 옥
5. 홍 순 화
6. 한 혜 성
7. 안 희 숙
8. 박 경 애
9. 김 혜 영
10. 박 해 정

개인복식 출전선수 명단입니다.

남 자

1. 김 성 희  
유 남 규
2. 김 국 철  
김 택 수
3. 리 승 일  
강 희 찬
4. 김 명 준  
박 지 현
5. 최 경 섭  
추 교 성

여 자

1. 리 분 희  
현 정 화
2. 유 순 복  
홍 차 옥
3. 한 혜 성  
홍 순 화
4. 안 희 숙  
박 경 애
5. 김 혜 영  
박 해 정

혼합복식 출전선수 명단입니다.

- |          |           |
|----------|-----------|
| 1. 유 남 규 | 6. 리 승 일  |
| 현 정 화    | 홍 차 욱     |
| 2. 김 성 희 | 7. 강 희 찬  |
| 리 분 희    | 안 희 숙     |
| 3. 김 택 수 | 8. 추 교 성  |
| 유 순 복    | 김 혜 영     |
| 4. 김 국 철 | 9. 최 경 섭  |
| 박 해 정    | 박 경 애     |
| 5. 리 근 상 | 10. 이 철 승 |
| 홍 순 화    | 한 혜 성     |

이상입니다.

北(김상부) : 예, 그래서 우리案 한번 읽지요. 우리 한번 읽고 거기서 차이나는 점만 이제 수정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귀축안을 들어보니까 그 내용적으로는 다 같다고요. 내용적으로는 다 같은데. 그 좀 순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있는데 그걸 잘 새겨 들어 보십시오.

#### 제41차 세계탁수선수권 대회 유일팀실무위원회 합의서

북남탁구유일팀 실무위원회는 제41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북남유일팀 구성 및 참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1. 선수선발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1) 협의에 의한 선수선발

- (1) 대회에 참가할 선수는 국제탁구련맹으로부터 쌍방 탁구협회에 배정된 인원을 쌍방협회가 각기 선발한다.
- (2) 국제탁구련맹 선수등급순위규정에 따라 자격을 획득한 선수는 자동적으로 출전한다.
- (3) 각종목(단체전, 개인단식, 개인복식, 혼성복식)에 출전하는 선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여자단체전에 참가하는 선수(4명)는 북측 2명, 남측 2명으로 구성한다.
  - ② 남자단체전에 참가하는 선수(5명)는 북측 3명, 남측 2명으로 구성한다.
  - ③ 개인단식전에는 위의 (1), (2) 항 선수전원이 출전하되 쌍방은 선수순위를 명기한다.
  - ④ 개인복식 및 혼성복식전에는 쌍방이 각기 1명으로 구성, 출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각종목별 유일팀 선수 순위에 따르는 명단은 별지에 첨부한다.

### 2) 선수훈련

- (1) 선수훈련은 대회현지에서 실시하며 그 기간은 3월 26일부터 4월 23일까지로 한다.
- (2) 선수훈련시의 수송, 숙식, 의료 등 제반 편의사항 및 훈련장소는 쌍방 탁구협회 유일팀실무위원회 공동위원장 명의로 대회조직위원

회에 협조를 요청한다.

(3) 선수훈련 및 대회기간 소요되는 재정은 공동으로 부담한다.

(4) 선수 및 역원들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의료 또는 기술인원의 방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선수단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선수단구성 — 이견 貴側案 맞았습니다. —

단 장	1명	(북측)
총 감 독	1명	(남측)
고 문	4명	(북측 2명, 남측 2명)
협 회 리 사	2명	(북측 1명, 남측 1명)
책 임 지 도 원	2명	(북측 남자책임지도원, 남측 여자책임지도원)
지 도 원	4명	(북측 2명, 남측 2명)
선 수	남자 12명	(북측 6명, 남측 6명)
	여자 10명	(북측 5명, 남측 5명)
전 문 가	2명	(북측 1명, 남측 1명)
총 무	2명	(북측 1명, 남측 1명)
대 외	2명	(북측 1명, 남측 1명)
공 보	2명	(북측 1명, 남측 1명)
통 역	2명	(북측 1명, 남측 1명)
의 료	2명	(북측 1명, 남측 1명)
과 학 촬 영	2명	(북측 1명, 남측 1명)
실 무 위 원	6명	(북측 3명, 남측 3명)
총 계	56명	(북측 28명, 남측 28명)

### 3) 선수단관리

- (1) 선수단관리는 단장이 책임지고 한다.
- (2) 단장의 부재시에는 총감독이 단장을 대리한다. 총감독은 선수단의 훈련과 경기를 감독하며 남, 녀 팀의 책임지도원을 지도한다.
- (3) 고문은 단장과 총감독의 자문역할을 한다.
- (4) 협회리사는 리사회 회의에 참가하며 책임지도원과 지도원들을 협조한다.
- (5) 총무는 선수단의 일정을 조직하고 집행하며 숙식, 수송등 편의와 재정 등을 총괄한다.
- (6) 대외는 국제탁구련맹과 조직위원회 및 다른 선수단과의 대외업무를 맡아수행한다.
- (7) 공보는 선수단공보사업을 담당한다.
- (8) 의료는 선수단성원들의 치료와 건강관리를 담당한다.
- (9) 통역은 선수단의 통역을 담당한다.
- (10) 전문가는 책임지도원과 지도원들을 협조한다.
- (11) 책임지도원은 지도원들과 협의하여 훈련계획을 작성하고 훈련 및 경기를 집행하며 지도원들을 지도한다.
- (12) 지도원은 담당선수들의 훈련 및 경기를 지도한다.
- (13) 과학촬영관은 훈련 및 경기에 대한 과학기술촬영을 담당한다.

### 4) 참가신청서제출

- (1) 대회참가신청서는 유일팀실무위원회에서 선수명단이 확정되는 즉시 2통을 작성하며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하여 대회조직위원회에 각기 발송한다.
- (2) 참가신청서는 3월 15일 이전에 발송한다.

5) 참가신청서제출후 선수단문제발생시 해결방안

(1) 선발된 선수가 부상, 질병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대회에 참가할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측 협회에서 다시 선발하여 보충한다.

(2) 그 외의 문제발생시에는 건별로 유일팀실무위원회에서 협의처리한다.

6) 선수단은 북과 남에서 각기 출발하며 3월 25일까지 현지에 도착한다.

3. 선수단 단체복 및 대회참가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사항

1) 단체복은 북측에서, 운동복은 남측에서 준비한다.

2) 개인지참용구(탁구채, 고무 등)는 각기 확보하고 공동사용용구(공, 고무질, 수건 등)는 공동으로 구입한다.

3) 선수단 단체복과 경기복 및 훈련복 등 일체 행장품과 장비에는 유일팀 기발표식외에 다른 표식을 하지 않는다.

4) 트레이닝가슴에는 유일팀기발표식밑에 우리말로 《코리아》를, 잔등에는 영어로 《KOREA》를 새겨넣는다.

4. 대회기간중 열리는 각종 회의에는 회의성격에 따라 현지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필요한 대표 또는 대표단을 구성, 참가시킨다.

5. 기타 유일팀 구성 및 참가에 관한 사항

1) 선수단 기발은 북측에서, 노래(록음테프와 악보)는 남측에서 준비한다.

2) 제41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공식적으로 초청받은 국제심판원은 유일팀선수단구성에 구애받지 않는다.

6. 본합의서는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2월 27일

판 문 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탁구협회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대한민국  
탁구협회 회장의  
위임에 의하여

탁구유일팀실무위원회  
북측공동위원장 장 옹

탁구단일팀실무위원회  
남측공동위원장 박성인

### 북남탁구유일팀 종목별 선수 순위에 따른 명단

#### 1. 남자 단체전 (5명)

북 측 : 김성희, 리근상, 김국철

남 측 : 유남규, 김택수

#### 2. 여자 단체전 (4명)

북 측 : 리분희, 유순복

남 측 : 현정화, 홍차옥

#### 개 인 전

##### 남 자

1. 유 남 규 (남측)
2. 리 근 상 (북측)
3. 김 성 희 (북측)
4. 김 택 수 (남측)
5. 박 지 현 (남측)

##### 녀 자

1. 리 분 희 (북측)
2. 현 정 화 (남측)
3. 유 순 복 (북측)
4. 홍 차 옥 (남측)
5. 홍 순 화 (남측)

6. 김 국 철 (북측)
7. 강 희 찬 (남측)
8. 리 승 일 (북측)
9. 추 교 성 (남측)
10. 김 명 준 (북측)
11. 이 철 승 (남측)

6. 한 혜 성 (북측)
7. 안 희 숙 (북측)
8. 박 경 애 (남측)
9. 김 혜 영 (북측)
10. 박 해 정 (남측)

남자 복식조 구성

1. 김 성 희  
유 남 규
2. 김 국 철  
김 택 수
3. 리 승 일  
강 희 찬
4. 김 영 준  
박 지 현
5. 최 경 섭  
추 교 성

여자 복식조 구성

1. 리 분 희  
현 정 화
2. 유 순 복  
홍 차 욱
3. 한 혜 성  
홍 순 화
4. 안 희 숙  
박 경 애
5. 김 혜 영  
박 해 정

혼성 복식조 구성

1. 유 남 규  
현 정 화
3. 김 택 수  
유 순 복

2. 김 성 희  
리 분 희
4. 김 국 철  
박 해 정

5. 리 근 상

홍 순 화

7. 강 희 찬

안 희 숙

9. 최 경 섭

박 경 애

6. 리 승 일

홍 차 옥

8. 추 교 성

김 혜 영

10. 이 철 승

한 혜 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 차이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南側에서 전변에 제기한 그  
게 합리적인 거는 거기다 될 수 있는대로 文件인것만큼 좀 잘 해보자고  
해서 그렇게 맞췄는데 다른 의견이 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南(朴秀蒼) : 예, 다른 거 없는 것 같은데, 複式 3페이지 괄호 3번, 4번.

北(김상부) : 예, 예. 그건 아까 원래 거기서 넣었기 때문에, 貴側에서 넣었  
기 때문에 그걸 아무래도 尊重해서 넣었는데. 원래는 이거 안들어가도 됩  
니다. 원래 本 會談에서 合意된 사항이기 때문에.

南(朴秀蒼) : 우리는 지금 北側을 尊重해서 또 뺀단 말이야.

北(김상부) : 그래서 넣었기 때문에 넣어서 그대로 합시다. 거 우리 거기측  
尊重해 준거니까.

南(朴秀蒼) : 그것은 있던 것 빼고, 우리가 빼니까 그쪽에서는 우리 尊重한  
다고 또 넣고 지금 그랬어요.

北(김상부) : 그러니까 별 差異 없단 말이야, 그건 넣는 거로 합시다.

南(朴秀蒼) : 넣는 걸로.

北(김상부) : 예.

南(朴道天) : 3, 4항.

北(김상부) : 예, 3, 4항. 예.

거기서는 그러니까 協議에 의한 選手選拔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거  
첫째 항을 지금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가 요 먼저 그걸 1, 2항을 합했  
었는데 貴側 案이 그게 유리하기 때문에 1, 2로 그렇게 넣는게 좋겠더라.

南(朴秀蒼) : 그러니까 이렇게 해갑시다.

「選手選拔 및 訓練에 관한 事項」에서 1번 거기는 1) 해가지고 우리는  
「가」인데 「協議에 의한 選手選拔」 있잖아요?

거기서는 差異나는 것은 없고, 귀측의 (1), (2)번을 우리는 (1)번에 포  
함시켜서.

北(김상부) : 包含시켰죠?

南(朴秀蒼) : 예.

北(김상부) : 예, 그런데 그걸 우리가 요번 저 제기했었는데, 貴側의 안이 1,  
2로 놓았더라란 말이야. 그래서 그 좀 內容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1, 2로  
했는데, 貴側 案대로 하지.

南(朴秀蒼) : 예.

北(김상부) : 예, 예. 貴側 案대로.

南(朴道天) : 1, 2를 묶는거로, 다시 묶는 거로.

北(김상부) : 그건 그러니까는 2를 나누어서, 1, 2로 그렇게 나누어서 놓자  
는 것이지?

南(朴秀蒼) : 그러며는 지금 現在의 北側 案대로 하자.

北(김상부) :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애. 예, 예.



그 다음에 다른 건 그대로 밑에 넣었던 말이요. 다른 건.

南(朴秀蒼) : 그 다음에 이 기술적인 문제로, 3, 4번이 지금 우리에게 뭐 없는데.

北(김상부) : 3번?

南(朴秀蒼) : 3번, 4번. 북측 2페이지의 3, 4가 우리에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北(김상부) : 3, 4번. 예, 없는 건데.

南(朴道天) : 이걸 왜 뺐냐면요.

原則을 정할 때는 個人單式은 이 선수가 나가고, 복식은 한명, 한명을 雙方에 하는 것으로 原則으로 한다 했지만, 이미 별지에 선수가 합의가 끝나서 다 名單이 나와 버렸기 때문에 그 原則은 필요없지 않느냐…….

北(김상부) : 아, 그건 뒤에도 같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넣어 주자 말이요.

그거 넣어 주고, 왜 그런가 하면 個人單式戰은 전원이 참가하는데, 개인 단식전은 이런 원칙에서 選手 順位를 別紙에 이제 明記하겠으니까 그대로 넣어주면 좋겠다는 거지. 내용상 뭐 차이나는 거는 없으니까.

南(朴秀蒼) : 예. 내용상 차이는. 예, 알았습니다. 포함시키겠습니다.

北(김상부) : 그 다음에 5번째.

南(朴道天) : 그런데 잠깐만요. ③ 번은 그대로 집어 넣으면 되는데 ④ 번은 쌍방이 각기 1명씩으로 出戰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고 했는데 쌍방이 한조씩은 댔단 말이요. 성희하고 분희하고, 남규하고 정화는.

北(김상부) :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한다가 아니라 그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南(朴道天) : 이 문안은 그대로 살리지요?

北(김상부) : 예, 그대로 살립니다.

南(朴秀蒼) : 그리고 뒤에 名單이 있으니까.

北(김상부) : 예, 명단이 붙으니까.

南(朴道天) : 그 말이 그 말이니까.

南(朴秀蒼) : 그 다음에, 아니 그것은 같고. 「各 種目에 出戰하는 선수 순위와 명단은 別紙에 添附한다」 내용은 같습니다.

北(김상부) : 예, 그건 같습니다.

南(朴秀蒼) : 그 다음에 거기 복측 것은 2) 번 훈련, 「나. 選手訓練」, 거기서 그 순서가 조금 다른데.

北(김상부) : 여기서 부터는 貴側 案을, 요 먼저 提起한 案을 그대로 넣었던 말예요. 우리가.

왜 그랬는가 하면 그게 더 한 눈에 알아 보기도 쉽고 文案整理하는데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건 그렇게 해도 뭐 다른 意見은 없을 것 같아요.

南(朴秀蒼) : 내용상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원래 우리 것을 그대로 받아 들이기 위해 하는 거니까.

北(김상부) : 지금 우리가 제기한 案대로 합시다.

南(朴秀蒼) :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調整을 하지요.

지금 현재의 北側 案대로 調整을 하자.

北(김상부) : 예.

北(김희진) : 최대한 貴側 案을 尊重했습니다.

南(朴秀蒼) : 지금은 內容이 다른게 아니고. 요구하는 時間이.

北(김상부) :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하나로 調整해야 빠를 것 같아서.

南(朴秀蒼) : 그 다음에 「選手團 構成 및 管理에 관한 事項」있지요?

그것도 원래 우리 것대로 따라 오다 보니까 우리는 좀 즐었고, 그러면 이것도 원래…….

北(김상부) : 원래 南側의 案대로, 우리가 이번에 제기한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南(朴秀蒼) : 順序만 「團長, 總監督」했는데, 이 順序를 「團長, 顧問 그 다음에 총감독」 이렇게 합시다.

北(김상부) : 그런데 그건 거기서 편리한 대로, 왜 그런가하면 尊重…….

南(朴秀蒼) : 아까 그건 말씀을 드렸지요.

北(김상부) : 그것만?

南(朴秀蒼) : 예, 다른 것은 없을 것예요.

北(김상부) : 總監督 하고, 顧問만 바꾸자 하는 것.

南(朴秀蒼) : 원래 아까 合意한 대로 順序가 어떤 문제가 되어서는 아닌데, 우리 나름대로 조금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순서는…….

北(김상부) : 顧問만.

南(朴秀蒼) : 그러면 다시 한 번 불러 보면, 團長, 顧問, 거기다가 표시를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總監督, 그 다음에 監督, 코치, 選手 그다음에 協會理事, 專門家, 그 다음에 總務, 渉外, 公報, 通譯, 醫療 그 다음에 撮影技士 그리고 實務委員, 순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로 할테니까 順序만 거기서 調整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選手團 管理에 있어서 1번 처럼 「選手選拔 및 訓練에 관한 事項」 이렇게 나중에 「관한 事項」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것도 統一을 시킵시다. 「選手團 管理에 관한 事項」 이렇게 통일시키자고.

北(김상부) :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맨 처음에 뭐였는가 하면 「1. 選手選拔 및 訓練에 관한 事項」이 있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있는 것은 「事項을」 다 없애자는 것이지.

南(朴秀蒼) : 그것은 좋은데.

北(김상부) : 그 다음에 「3. 선수단 구성 및 관리에 관한……」

南(朴秀蒼) : 事項이지.

北(김상부) : 그건 큰 두번째니까 넣잔 말이지?

南(朴秀蒼) : 알겠어요. 그 안에 들어간 것은 없애고.

北(김상부) : 그 안에 들어가는 건 없다 이거죠. 「選手團 管理」.

南(朴秀蒼) : 예, 알았어요. 이 順序는 지금 맞지요?

내용을 지금 저쪽 길 그대로 옮겨 났으니까.

南(朴道天) : 이 順序도 모든 것을 團長이 1번, 2번이 顧問, 3번이 總監督이고 그 다음에 協會理事 그 다음에 專門家.

北(김상부) : 專門家? 專門家로 하자? 그 다음에 總務, 對外, 公報 이렇게 나가면 되지 않아요?

南(朴道天) : 아니 이 앞의 順序대로.

北(김상부) : 앞의 順序대로?

南(朴秀蒼) : 選手團 構成의 順序대로 하자는 얘기에요.

北(김상부) : 選手團 構成의 順序대로.

南(朴道天) : 예, 團長, 顧問, 總監督, 監督, 코치, 選手 그 다음에 協會理事, 專門家, 그 다음 總務, 渉外, 公報, 通譯, 醫療.

南(朴秀蒼) : 그렇게 順序만 조정을 합시다.

그 다음에 「參加申請書 提出」 그렇게 되지요? 거기는 뭐.

北(김상부) : 다 같아요.

南(朴秀蒼) : 아니지 거기 다르게 뭐냐 하면…….

2通, 3通의 차이가 있어요.

北(김상부) : 3通으로 해야 되겠어요?

南(朴秀蒼) : 3通으로 해야만…….

北(김상부) : 그럼 3通으로 합시다.

南(朴秀蒼) : 그러며는 그 內容 自體도 우리 것대로 거기서 調整을 하면 됩니다.

北(김상부) : 3通을 작성하며 쌍방공동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南(朴秀蒼) : 다만, 그 다음에 참가신청서는 「늦어도」라는 말이 있고, 없고 하니까, 「늦어도」라는 말은 우리가 빼고 합시다.

北(김상부) : 뽑읍시다. 3月 15日 이전에 發送하자.

南(朴秀蒼) : 그 다음에 「參加申請書 제출후 選手團問題 發生時 解決方案」 여기는 다르게 없고. 그 다음에 「바」해가고 『選手團의 結團式과 解團式은 하지 않는다』라는 그 項이 우리는 있고 거기는 완전히 빼 버렸는데 그것은 넣어 주세요.

北(김상부) : 넣는게 낫겠어요?

南(朴秀蒼) : 아니, 本會談에서 合意된 事項이라. 그런데 어디서 한다는 애

기가 아니고 이 項目이 合意된 사항이기 때문에 넣어서 『選手團의 結團式과 解團式은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北(김상부) : 5)가 되겠습니다.

南(朴秀蒼) : 5)가 아니고 6)이 되지요, 그쪽은. 우리는 「바」가 되고.

北(김상부) : 우리는 6)이 되고 그쪽은 「바」가 되고.

南(朴秀蒼) : 그 다음에 6번, 『選手團의 出發, 歸還과 관련한 輸送經路등에 관한 事項』이 거기는 다만 하나로 表現이 되어 있고 우리는 두項으로 나누어서 表現이 되어 있는 거예요.

北(김상부) : 그런데 그건 하나로 들어가도 돼요.

北(김희진) : 그렇기 때문에 『選手團은 北과 南에서 각기 출발하며 3月 25日까지 現지에 도착한다』 그 內容이 들어가 있다 말예요.

南(朴秀蒼) : 「歸還도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라는 말이 우리는 追加가 되어 있을 뿐, 다른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北(김상부) : 하나로 합시다.

南(朴秀蒼) : 두 文章을 하나로 表現하는 것은 좋은데, 出發과 歸還이라는 것을 거기도 포함을 시켜 주세요.

北(김상부) : 『選手團의 出發과 歸還은 각기 편리한대로 하며 3月 25日까지 現地に 도착한다』 이렇게 합시다.

南(朴秀蒼) :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표현 자체가 우습지, 그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두가지로 分離를 시켜요. 分離시키면 간단해요.

6)번을 (1) (2)로 분리시켜서 우리 것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北(김상부) : 그렇게 합시다. 南側 案대로 합시다. 7)입니다

南(朴秀蒼) : 그렇지. 그 다음에 「3. 選手團 團服 및 大會參加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事項」 그것은 다를 바 없고, 다 다를 바가 없어요.

北(김상부) : 어떤 것? 團體服?

南(朴秀蒼) : 「選手團 團服 및 大會參加에 필요한 裝備에 관한 事項」

그런데 이것은 3번, 그쪽도 큰 3번이지요? 큰 3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표현에 있어서 우리 것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예요.

北(김상부) : 똑 같은데.

南(朴秀蒼) :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 3)번, 4)번, 3)번에는 어떤 표식도 하지 않는다. 해놓고 4)번에는 가슴에는 뭐를 하고 등에는 뭐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合理性으로 본다면 지금 矛盾이 되어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그런 矛盾이 克服이 되니까.

北(김상부) : 이걸 「3), 選手團 團體服과 競技服 및 訓練服 등 일체 行狀品과 裝備에는 유일팀 기발 표식 외에 다른 표식은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4) 트레이닝 가슴에는…….」 그걸 썼단 말야 귀측의 案대로 우리가 調整한 거예요.

南(朴秀蒼) : 다 알겠는데. 우리도 처음에 거기에 모순이 있었던 거예요.

北(김상부) : 모순이 있었다? 「표식을 하지 않는다」…….

南(朴秀蒼) : 『표식을 하지 않는다』 해놓고 또 거기다 『「코리아」를 새겨넣는다』 이렇게 된 것이라 그 표현을 우리 식대로 하면 그 問題가 解消가 됩니다.

北(김상부) :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우리 맨 처음에 했던 대로, 귀측에서

이번에 낸 案대로, 『트레닝 團體服과 競技服 및 訓練服 등 일체 行狀品과 裝備에는 유일팀 기발 표식외에 다른 표식을 하지 않는다』 그건 간단 말예요. 「하지 않는다」 하고…….

南(朴秀蒼) : 해놓고 거기다 또 「코리아」를 새겨넣는다 하니까 모순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 대로 표현하면, 틀리지 않고 원래 이렇게 하자고 한 것이 복측이야, 복측이 정확히 표현한 것이라고.

北(김상부) : 우리 案이?

南(朴秀蒼) : 그게 정확하다니까.

北(김희진) : 番號만 없애면 된다고요, 우리가..

南(朴道天) : 番號대신에 但이라는 말을…….

南(朴秀蒼) : 但이라는 말을 넣고 번호를 없애면 된다고요.

南(朴道天) : 4)를 但으로 바꾸면 돼요.

北(김상부) : 4)項을 없애고 거기다 「다만」이란 말만…….

南(朴秀蒼) : 그렇지요. 거기다 「다만」이란 말만 넣으면 돼요.

北(김상부) : 「다만 트레닝 가슴에는 유일팀 기발 표식밖에…….」

南(朴秀蒼) : 그 말만 넣으면 돼요.

北(김상부) : 『우리말로 「코리아」를, 잔등에는 英語로 「KOREA」를 새겨 넣는다』

南(朴秀蒼) : 예.

北(김상부) :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3) 選手團 團體服과 競技服 및 訓練服 등 一切 行狀品과 裝備에는 유일팀 기발 표식외에 다른 표식을 하지 않는다, 다만 트레닝 가슴에는 유일팀 기발 표식밖에 우리말로 「코리아」



를 잔등에는 영어로 「KOREA」를 새겨넣는다』 이렇게 합시다.

南(朴秀蒼) : 다음에 「4) 大會 期間중에 열리는 各種會議」 있잖아요? 우리는 「필요한 代表를 참가 시킨다」 이랬는데 귀측에서는 「필요한 代表 또는 代表團을 構成」이라는 말이…….

北(김희진) : 대표단은 2명 이상일 때.

南(朴秀蒼) : 2명 이상이니까! 그것은 北側 案을 저희가 受容을 할게요.

北(김상부) :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네번째는 우리 案대로 그렇게 조정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읽을까요?

『大會期間중 열리는 各種 會議에는 회의 성격에 따라 현지에서 雙方이 協議하여 필요한 代表 또는 代表團을 구성 참가시킨다』

南(朴秀蒼) : 그리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北(김상부) : 5, 6번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7월27로 된거 같아요. 아까 읽을 때.

南(朴秀蒼) : 2月 27日.

명단은, 添附物은 확인이 됐고.

北(김희진) : 名單은 다른 것 없고 다 一致되는데 우리는 個人戰 參加 選手 名單과 複式, 混性複式 이렇게 됐는데, 거기서는 한통 더 대회조직위원회에 제출할 選手 順位 및 名單하고 첫장에서 대회 참가하는 사람 12명 넣었던 말예요. 이걸 그대로 입니다.

南(朴道天) : 이것 왜냐 하면 최경섭이가 個人單式에는 안 뛰고 複式에는 뛰고 하기 때문에 名單은 앞에 넣어줘야 최경섭이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 이야기지요.

北(김희진) : 그래서 우리 複式組에 넣었던 것이니까. 이걸.

北(김상부) : 그러니까 원래 없어도 되는데요. 귀측에서 第41次 世界卓球選手權大會 單一팀 選手 名單해서 처음에 大會組織委員會에 제출할 選手 順位 名單, 여기 우리 單式하는데에 마지막에 최경섭이가 들어가 있단말이에요. 12명, 이걸 그대로 하겠어요. 貴側 案대로.

南(朴秀蒼) : 그렇게 하고 北側案중에서 名單에(南側) (北側)하는 것은 그것은 빼주세요. 하나로 나가는 名單에 南側, 北側이라고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

北(김상부) : 남측, 북측?

北(김희진) : 國際卓球聯盟에 보낼 때는?

北(김상부) : 그 쪽에 보낼 때는 뽑자는 것이지.

南(朴秀蒼) : 아니 그랬는데, 여기서도 하나로 된거 다 안다 이거예요. 이분이 북측 선수라는것 다 알고 하는데, 거기다 굳이 단일팀명단이라고 하면서 南側, 北側할 필요가 없어요.

北(김상부) : 그러니까 團體戰만 내놓고 南側, 北側한 것 뽑자 이거지요.

南(朴秀蒼) : 빼자 이거예요. 빼 버리자 그건 필요가 없는 것이예요.

北(김상부) : 團體戰은 아무래도 북측 누구, 남측 누구 들어 가는 것이고.

南(朴秀蒼) : 團體戰도 그건 뭐 필요가 없는 것이라 단일팀 됐는데 뭐?

南(朴道天) : 團體戰도 한나라로 나가기 때문에 5명, 4명만 쓰면 되지.

北(김상부) : 南側, 北側 없애자?

南(朴秀蒼) : 그럼 뭐 必要가 있어요?

北(김상부) : 唯一팀하는데 좋은, 그럼 명단에서는 南側, 北側은 생략합시다.

그렇게 하면 다르게 없습니다.

南(朴秀蒼) : 예, 그렇게 調整을 해서 5時에 만나가지고 署名해서 서로 交換  
합시다.

北(김상부) : 그렇게 하고, 아까 3月 5日날, 하자고 그랬지요? 3月 5日날 中  
監委가 무슨 會議 있을텐데?

南(朴秀蒼) : 그날 화요일인데 中監委가, 무슨 會議 있을텐데.

北(김상부) : 그래서 3月 6日날 10時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南(朴秀蒼) : 3월 6日날 10時로? 예. 그렇시다.

北(김상부) : 우리 實務委員會 할 때, 委員長들 끼리 合意하겠지만 그렇게  
알고 討論하는게 어떻겠느냐 해서 내가 말하는 것예요.

南(朴道天) : 書記長先生, 우리가 만든 名單에 이름 틀린 아이들 없어요?  
이대로 하면 됩니까?

北(김희진) : 우리 選手들?

南(朴道天) : 그쪽 表記方法대로, 유순복이는 그냥 「유」가 맞아요?

北(김희진) : 그래요 「유」가 맞아요.

南(朴道天) : 「류」가 아니지요?

北(김희진) : 예. 「유」.

北(김상부) : 우리가 마무리 作業을 한 45分 했습니다. 文案整理까지 했으니  
까, 이젠 아무래도 第41次 唯一팀 選手團이 構成되겠고, 정말 民族앞에  
기쁨을 주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南(朴秀蒼) : 그렇습니다.

北(김상부) : 朴先生이랑 수고 많았습니다.

南(朴秀蒼) :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5時에 만남시다.

<雙方 實務代表 人事交換後 退場>

午後會議 (17:07-17:39)

<雙方代表立場 및 人事 交換>

北(장 응) : 악수는 계속 더 좋으니까.

南(朴聖仁) : 우리 장선생님은 키가 크니까 양쪽에 다 다오시네, 앉으실까요?

北(장 응) : 먼저 한번씩 읽을까요?

南(朴聖仁) : 그러지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北(장 응) : 이쪽에서 읽게 합시다.

南(朴聖仁) : 그럴까요?

北(장 응) : 예.

南(朴聖仁) : 그럼 朴代表가 읽겠습니다.

北(장 응) : 우리 거 한부만 넘겨줘요.

南(朴秀蒼) : 자,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실무위원회 합의서

남북탁구단일팀 실무위원회는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선수선발 및 훈련에 관한 사항

가. 협의에 의한 선수선발

(1) 대회에 참가할 선수는 국제탁구연맹으로부터 쌍방 탁구협회에

배정된 인원을 쌍방 협회가 각기 선발한다.

- (2) 국제탁구연맹 선수랭킹 규정에 따라 자격을 획득한 선수는 자동적으로 출전한다.
- (3) 각 종목(단체전, 개인단식, 개인복식, 혼합복식) 출전선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여자단체전에 참가하는 선수(4명)는 남측 2명, 북측 2명으로 구성한다.
  - (나) 남자단체전에 참가하는 선수(5명)는 남측 2명, 북측 3명으로 한다.
  - (다) 개인단식전에는 상기 (1), (2)항 선수전원이 출전하되 쌍방은 선수순위를 명기한다.
  - (라) 개인복식 및 혼합복식전에는 쌍방이 각기 1명으로 구성·출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마) 각 종목별 단일팀선수 순위에 따르는 명단은 별지에 첨부한다.

#### 나. 선수 훈련

- (1) 선수훈련은 대회현지에서 실시하며 그 기간은 3월 26일부터 4월 23일까지로 한다.
- (2) 선수훈련시의 수송, 숙식, 의료 등 제반 편의사항 및 훈련장소는 쌍방 탁구협회 단일팀실무위원회 공동위원장 명의로 대회조직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한다.
- (3) 선수훈련 및 대회기간중 소요되는 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한다.

(4) 선수 및 임원들이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의료 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선수단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가. 선수단 구성

- 단 장 : 1명 (북측)
- 고 문 : 4명 (남북 각 2명)
- 총 감 독 : 1명 (남측)
- 감 독 : 2명 (남자는 북측, 여자는 남측)
- 코 치 : 4명 (남북 각 2명)
- 선 수 : 남자 12명 (남북 각 6명)  
          여자 10명 (남북 각 5명)
- 협회이사 : 2명 (남북 각 1명)
- 전 문 가 : 2명 ( " )
- 총 무 : 2명 ( " )
- 섭 외 : 2명 ( " )
- 공 보 : 2명 ( " )
- 통 역 : 2명 ( " )
- 의 료 : 2명 ( " )
- 촬 영 : 2명 ( " )
- 실무위원 : 6명 (남북 각 3명)
- <총 계> : 56명 (남측 28명, 북측 28명)

## 나. 선수단 관리

- (1) 선수단관리는 단장이 책임지며 단장 부재시에는 총감독이 단장을 대리한다.
- (2) 고문은 단장과 총감독의 자문역을 맡는다.
- (3) 총감독은 선수단의 제반 훈련과 경기를 총괄한다.
- (4) 감독은 코치와 협의하여 훈련계획을 작성하고 경기를 집행하며 코치를 지도한다.
- (5) 코치는 담당선수들의 훈련 및 경기를 지도한다.
- (6) 탁구협회 이사는 감독 및 코치의 활동을 지원한다.
- (7) 전문가는 감독 및 코치의 자문에 응한다.
- (8) 총무는 선수단의 훈련과 관련한 제반 행정사항을 관장·처리한다.
- (9) 섭외는 국제탁구연맹과 대회조직위원회 및 여타 선수단과의 섭외 업무를 담당한다.
- (10) 공보는 선수단 활동과 관련한 공보업무를 담당한다.
- (11) 통역은 선수단의 통역업무를 담당한다.
- (12) 의료는 선수단의 치료 및 건강관리를 담당한다.
- (13) 촬영기사는 훈련 및 경기자료의 수집·분석을 위한 촬영을 담당한다.

## 다. 참가신청서 제출

- (1) 대회참가신청서는 단일팀실무위원회에서 선수명단이 확정되는 즉시 3통을 작성하며,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하여 제41회 세계탁구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2통, 국제탁구연맹에 1통씩 각기 발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참가신청서는 3월 15일 이전에 발송한다.

라. 참가신청서 제출후 선수단 문제발생시 해결방안

(1) 선발된 선수가 부상, 질병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대회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에서 선발하여 충원한다.

(2) 그 이외의 문제발생시에는 사안별로 단일팀실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처리한다.

마. 선수단의 결단식과 해단식은 하지 않는다.

바. 선수단의 출발, 귀환과 관련한 수송 및 경로

(1) 선수단의 출발과 귀환은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2) 선수단의 대회 현지 도착날짜는 3월 25일(월)까지로 한다.

3. 선수단 단복 및 대회참가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사항

가. 단복과 운동복을 분리하여 단복은 북측에서, 운동복은 남측에서 준비한다.

나. 개인지참용구(탁구채, 고무 등)는 각자 확보하고, 공동사용 용구(공, 고무풀, 수건 등)는 공동으로 구입한다.

다. 단일팀 단복과 운동복 등 행장품과 각종 장비에는 단일팀 단기표지 이외에 다른 표지는 할 수 없다.



단, 트레이닝복의 가슴에는 단일팀 단기표지 밑에 우리말로 『코리아』를, 등에는 영어로 『KOREA』를 새겨넣는다.

4. 대회기간중 열리는 각종 회의에는 회의성격에 따라 현지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필요한 대표 또는 대표단을 구성·참가시킨다.

5. 기타 단일팀 구성 및 참가에 따른 제반사항

가. 단일팀의 단기는 북측에서, 단가(녹음테이프 및 악보)는 남측에서 준비한다.

나.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공식적으로 초청받은 국제심판은 단일팀선수단 구성에 구애받지 않는다.

6. 본 합의서는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2월 27일 관 문 점

대한민국

탁구협회 회장의

위임에 의하여

탁구단일팀실무위원회

남측 공동위원장

박성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탁구협회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탁구유일팀실무위원회

북측 공동위원장

장응

\* 별첨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선수명단

1. 대회조직위원회에 제출할 선수순위 및 명단

순 위	남	자	여	자
1	유 남	규	리 분	희
2	리 근	상	현 정	화
3	김 성	희	유 순	복
4	김 택	수	홍 차	욱
5	박 지	현	홍 순	화
6	김 국	철	한 혜	성
7	강 회	찬	안 희	숙
8	리 승	일	박 경	애
9	추 교	성	김 혜	영
10	김 명	준	박 해	정
11	이 철	승		
12	최 경	섭		

2. 단체전 출전선수 명단

순 위	남	자	여	자
1	유 남	규	리 분	희
2	리 근	상	현 정	화
3	김 성	희	유 순	복
4	김 택	수	홍 차	욱
5	김 국	철		

3. 개인단식 출전선수 명단

순 위	남	자	여	자
1	유 남	규	리 분	희
2	리 근	상	현 정	화
3	김 성	희	유 순	복
4	김 택	수	홍 차	욱
5	박 지	현	홍 순	화
6	김 국	철	한 혜	성
7	강 희	찬	안 회	숙
8	리 승	일	박 경	애
9	추 교	성	김 혜	영
10	김 명	준	박 해	정
11	이 철	승		

4. 개인복식 출전선수 명단

순 위	남	자	여	자
1	유남규	— 김성희	현정화	— 리분희
2	김택수	— 김국철	홍차욱	— 유순복
3	강희찬	— 리승일	홍순화	— 한혜성
4	박지현	— 김명준	박경애	— 안희숙
5	추교성	— 최경섭	박해정	— 김혜영

5. 혼합복식 출전선수 명단

순 위	남	여
1	유 남 규	현 정 화
2	김 성 희	리 분 희
3	김 택 수	유 순 복
4	김 국 철	박 해 정
5	리 근 상	홍 순 화
6	리 승 일	홍 차 욱
7	강 희 찬	안 희 숙
8	추 교 성	김 혜 영
9	최 경 섭	박 경 애
10	이 철 승	한 혜 성

이상입니다.

北(김상부) : 우리측 合意書 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 41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유일팀실무위원회 합의서

북남탁구유일팀 실무위원회는 제 41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북남유일팀 구성 및 참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1. 선수선발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1) 협의에 의한 선수선발

- (1) 대회에 참가할 선수는 국제탁구련맹으로부터 쌍방 탁구협회에 배정된 인원을 쌍방협회가 각기 선발한다.
- (2) 국제탁구련맹 선수등급순위규정에 따라 자격을 획득한 선수는 자동적으로 출전한다.
- (3) 각종목(단체전, 개인단식, 개인복식, 혼성복식)에 출전하는 선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여자단체전에 참가하는 선수(4명)는 북측 2명, 남측 2명으로 구성한다.
  - ② 남자단체전에 참가하는 선수(5명)는 북측 3명, 남측 2명으로 구성한다.
  - ③ 개인단식전에는 우의 (1), (2)항 선수전원이 출전하되 쌍방은 선수순위를 명기한다.
  - ④ 개인복식 및 혼성복식전에는 쌍방이 각기 1명으로 구성, 출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각종목에 출전하는 선수순위와 명단은 별지에 첨부 한다.

### 2) 선수훈련

- (1) 선수훈련은 대회현지에서 실시하며 그 기간은 3월 26일부터 4월 23일까지로 한다.

(2) 선수훈련시의 수송, 숙식, 의료 등 제반 편의사항 및 훈련장소는 쌍방 유일팀실무위원회 공동위원장의 명의로 대회조직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한다.

(3) 선수훈련 및 대회기간 소요되는 재정은 공동으로 부담한다.

(4) 선수 및 역원들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의료 또는 기술인원의 방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선수단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 선수단 구성

단 장	1명	(북측)
고 문	4명	(북측 2명, 남측 2명)
총 감 독	1명	(남측)
책임지도원	2명	(북측 남자책임지도원, 남측 여자책임지도원)
지 도 원	4명	(북측 2명, 남측 2명)
선 수	남자 12명	(북측 6명, 남측 6명)
	여자 10명	(북측 5명, 남측 5명)
협 회 리 사	2명	(북측 1명, 남측 1명)
전 문 가	2명	(북측 1명, 남측 1명)
총 무	2명	(북측 1명, 남측 1명)
대 의	2명	(북측 1명, 남측 1명)

공 보	2명 (북측 1명, 남측 1명)
통 역	2명 (북측 1명, 남측 1명)
의 료	2명 (북측 1명, 남측 1명)
과 학 촬 영	2명 (북측 1명, 남측 1명)
실 무 위 원	6명 (북측 3명, 남측 3명)
총 계	56명 (북측 28명, 남측 28명)

### 3) 선수단관리

- (1) 단장은 선수단을 책임진다.
- (2) 고문은 단장과 총감독의 자문역할을 한다.
- (3) 총감독은 단장의 부재시 단장을 대리하고 선수단의 훈련과 경기를 감독하며 남, 녀 팀의 책임지도원을 지도한다.
- (4) 책임지도원은 지도원들과 협의하여 훈련계획을 작성하고 훈련 및 경기를 집행하며 지도원들을 지도한다.
- (5) 지도원은 담당선수들의 훈련 및 경기를 지도한다.
- (6) 협회리사는 리사회 회의에 참가하며 책임지도원과 지도원들을 협조한다.
- (7) 전문가는 책임지도원과 지도원들을 협조한다.
- (8) 총무는 선수단의 일정을 조직하고 집행하며 숙식, 수송 등 편의와 재정등을 총괄한다.
- (9) 대외는 국제탁구련맹과 조직위원회 및 다른 선수단과의 대외업무를 맡아수행한다.
- (10) 공보는 선수단공보사업을 담당한다.

- (11) 통역은 선수단의 통역을 담당한다.
- (12) 의료는 선수단성원들의 치료와 건강관리를 담당한다.
- (13) 과학촬영은 훈련 및 경기에 대한 과학기술촬영을 담당한다.

4) 참가신청서 제출

- (1) 대회참가신청서는 유일팀실무위원회에서 선수단명단이 확정되는 즉시 3통을 작성하며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하여 대회조직위원회에 2통, 국제탁구련맹에 1통씩을 각기 발송한다.
- (2) 참가신청서는 3월 15일 이전에 발송한다.

5) 참가신청서제출후 선수단문제발생시 해결방안

- (1) 선발된 선수가 부상, 질병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측 협회에서 다시 선발하여 보충한다.
- (2) 그 외의 문제발생시에는 건별로 유일팀실무위원회에서 협의처리한다.

6) 선수단 결단식과 해단식은 하지 않는다.

7) 선수단의 출발 및 귀환

- (1) 선수단의 출발과 귀환은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 (2) 선수단의 대회현지 도착날자는 3월 25일까지로 한다.

3. 선수단 단체복 및 대회참가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사항

- 1) 단체복은 북측에서, 운동복은 남측에서 준비한다.
- 2) 개인지참용구(탁구채, 고무 등)는 각기 확보하고 공동사용용구(공, 고무풀, 수건 등)는 공동으로 구입한다.



3) 선수단 단체복과 경기복 및 훈련복 등 일체 행장품과 장비에는 유일팀 기발표식외에 다른 표식을 하지 않는다.

다만, 트레닝가슴에는 유일팀기발표식밑에 우리말로 《코리아》를, 잔등에는 영어로 《KOREA》를 새겨넣는다.

4. 대회기간중 열리는 각종 회의에는 회의성격에 따라 현지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필요한 대표 또는 대표단을 구성, 참가시킨다.

5. 기타 유일팀 구성 및 참가에 관한 사항

1) 선수단 기발은 북측에서, 노래(록음테프와 악보)는 남측에서 준비한다.

2) 제41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공식적으로 초청받은 국제심판원은 유일팀선수단구성에 구애받지 않는다.

6. 본합의서는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2월 27일

관 문 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탁구협회 회장의

탁구협회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위임에 의하여

탁구유일팀실무위원회

탁구단일팀실무위원회

북측공동위원장 장 응

남측공동위원장 박성인

## 북남탁구유일팀 선수명단

### 1. 선수 순위 및 명단

#### △ 남 자

- |    |       |     |       |
|----|-------|-----|-------|
| 1. | 유 남 규 | 7.  | 강 희 찬 |
| 2. | 리 근 상 | 8.  | 리 승 일 |
| 3. | 김 성 희 | 9.  | 추 교 성 |
| 4. | 김 택 수 | 10. | 김 명 준 |
| 5. | 박 지 현 | 11. | 리 철 승 |
| 6. | 김 국 철 | 12. | 최 경 섭 |

#### △ 녀 자

- |    |       |     |       |
|----|-------|-----|-------|
| 1. | 리 분 희 | 6.  | 한 혜 성 |
| 2. | 현 정 화 | 7.  | 안 희 숙 |
| 3. | 유 순 복 | 8.  | 박 경 애 |
| 4. | 홍 차 옥 | 9.  | 김 혜 영 |
| 5. | 홍 순 화 | 10. | 박 해 정 |

### 2. 단체전출전선수

#### △ 남 자

- |    |       |
|----|-------|
| 1. | 유 남 규 |
| 2. | 리 근 상 |
| 3. | 김 성 희 |
| 4. | 김 택 수 |
| 5. | 김 국 철 |

#### △ 녀 자

- |    |       |
|----|-------|
| 1. | 리 분 희 |
| 2. | 현 정 화 |
| 3. | 유 순 복 |
| 4. | 홍 차 옥 |

### 3. 개인단식출전선수명단

#### △ 남 자

1. 유 남 규
2. 리 근 상
3. 김 성 희
4. 김 택 수
5. 박 지 현
6. 김 국 철
7. 강 희 찬
8. 리 승 일
9. 추 교 성
10. 김 명 준
11. 리 철 승

#### △ 녀 자

1. 리 분 희
2. 현 정 화
3. 유 순 복
4. 홍 차 옥
5. 홍 순 화
6. 한 혜 성
7. 안 희 숙
8. 박 경 애
9. 김 혜 영
10. 박 해 정

### 4. 복식출전선수 명단

#### △ 남 자

1. 김 성 희  
유 남 규
2. 김 국 철  
김 택 수

#### △ 녀 자

1. 리 분 희  
현 정 화
2. 유 순 복  
홍 차 옥

- 3. 리 승 일  
강 희 찬
- 4. 김 명 준  
박 지 현
- 5. 최 경 섭  
추 교 성

- 3. 한 혜 성  
홍 순 화
- 4. 안 희 숙  
박 경 애
- 5. 김 혜 영  
박 해 정

5. 혼성복식출전선수명단

- 1. 유 남 규  
현 정 화
- 2. 김 성 희  
리 분 희
- 3. 김 택 수  
유 순 복
- 4. 김 국 철  
박 해 정
- 5. 리 근 상  
홍 순 화

- 6. 리 승 일  
홍 차 욱
- 7. 강 희 찬  
안 희 숙
- 8. 추 교 성  
김 혜 영
- 9. 최 경 섭  
박 경 애
- 10. 리 철 승  
한 혜 성

南(朴聖仁) : 요것 잠깐, 요 말씀을 드리기전에 北韓 合意書중에서 2. 에 2) 를 봐 주세요.

여기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南(朴秀蒼) : 내용이 빠진게 아니고 번호가 그쪽에 이제.

南(朴聖仁) : 박선생님도.

南(朴秀蒼) : 아냐.

南(朴聖仁) : 1에서 3으로 오는 경우가.

南(朴秀蒼) : 1에서 2가 없고 3으로 뛰었어, 지금 2번에 선수단 구성 나오  
죠. 그다음에, 그다음이 바로 3)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2번이야, 누  
락된 것이 아니고, 그 표시가 숫자가 이렇게 됐어요.

北(장 응) : 고건 고칩시다.

南(朴聖仁) : 그것만 고쳐서 주세요.

#### < 雙方 委員長 合意書 署名 >

北(장 응) : 자, 우리 얼른 넘겨 드리지요. 署名하기전에 朴秀蒼先生하고  
김상부위원 동지랑 道天先生하고 우리 회진서기장 동지들이 아주 훌륭한  
문안을 만들어 준데 대해서 우리 둘이 사의를 함께 표하십시다.

#### < 雙方 委員長 合意書 交換 >

南(朴聖仁) :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北(장 응) : 짧은 시간에 一瀉千里로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할 수 있었  
다는 것 사의를 표합니다.

< 雙方 代表團 및 關係者 拍手 >

南(朴聖仁) : 됐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北(장 응) : 아직 그쪽 文件이 아직 안 됐습니까?

南(朴聖仁) : 그 건은 나중에, 나중에. 單一팀 관계는 內容 다 아는거니까.

그냥 서명만 해가지고 交換하도록 그렇게.

北(장 응) : 그럭합니다.

南(朴聖仁) : 이 실질적으로 單一팀을 탄생시키는 것이 卓球分野에서는 정말 統一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北(장 응) : 그래서 다 같은 심정인데 감개무량합니다.

우리가 이거 蹴球에는 하루 뒤졌는데, 뒤졌지만 무슨 자랑은 있는가, 우리는 本選手權大會라는 것, 내가 완전히 卓球選手, 卓球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탁구는 本選手權大會라는 것, 축구는 청년, Youth Championship이라는 것, 이런 문제에서 차원이 다르고 우리가 높고, 다음에 우리가 비록 오늘 서명을 했지만 蹴球보다 한두달 먼저 유일팀으로 최초로 우리가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體育分野에서 分界線을 헐어버린 것처럼 그런 경사도 되고 우리 민족이 다 즐길, 우리 統一祝祭로 될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기, 나가서 서로 따로 응원하고 그다음에 대결하고 優劣을 겨루던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卓球分野에서 처음으로 깨져 나간데에

대해서 저는 기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이제 우리 實務委員들이 오늘 그쪽에서 기어이 실무위원을 놓어야겠다고 해서 가게 되는데 實務委員의 과제란 그저 선수들이 경기를 잘하게 해서 이 유일팀을 별개로 갈때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각 方面으로 努力하는 것과 함께 이것이 앞으로 계속 되어서, 계속 되어서 다음번 選手權大會, 올림픽경기대회도 계속 유일팀으로 가게 될 것을 충심으로 바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南(朴聖仁) : 좋은 말씀 전적으로 共感합니다.

北(장 응) : 감사합니다.

南(朴聖仁) : 감사합니다. 저희 蹴球의 예와 마찬가지로 위에다가 간단히 祝賀의 자리를 만들었는데 잠깐 같이 가서 參席하셔서 서로 기쁨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北(장 응) : 잠깐 그저 한가지 있는데 아까 우리 넘겨준 그 녹음테이프 들어 봤는데 조금 우리가 본래 合意한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약간 다른 것이 있습니다.

南(朴聖仁) : 어떤 분야인데요?

北(장 응) : 약간 반음씩 내려간 거 있고 내려간 부분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어떤 것으로 했는가 하면 우리 테이프를 한번 잘 보시고 만약에 의견이 있으시다면 연락을 해주십시오.

그 악보와 그 테이프가 1926년 아리랑이 나왔을 때 그때 무성영화 시대니까 김연실 배우 지금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김연실씨 이제는 아주 할머니가 되셨는데 처음으로 서울서 부른 것입니다. 부른 그대로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가로 쓰는 것은 그것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가서 토론

해보십시오. 전문가들과 토의해 주십시오.

南(朴聖仁) : 아까 넘겨 주신 것을 저희가 아직 듣지를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 큰 意見이 있으면 다시 한번.

北(장 응) : 한 반음씩 내려가는 것이 조금 다른.

南(朴聖仁) : 고걸 하여튼 참고로 삼겠습니다. 올라 가지죠.

北(장 응) : 2통씩 해서 하나씩 나누어 가져야 하고, 英文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기무라 이찌로한테 보내는 것이 2통씩이 있어야 되고.

南(朴秀蒼) : 우리 것하고 英文하고.

北(장 응) : 해서 하나씩 나누고.

南(朴聖仁) : 자, 수고하셨습니다.

< 雙方代表 人事交換後 退場 >